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

세상의 학교

꽃이란 꽃은 모두 돌아들 왔고
등이란 등은 모두 내다결렸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사람과 하늘의 큰 스승 부처님 오신 달에
등으로 큰 길 하나 열린 날,
동국대학교 열린 날.

고마워라, 낮빛으로 달력이 되어주는 꽃들
온몸으로 날짜를 짚어주는 연등.
그리고 천년의 해시계
남산 소나무.

꽃이여 등이여 소나무여,
그리고 친구여
하늘 끝 땅 끝까지 말 좀 전해주시게나.
생일날 아침 문득,
산골짜기 초등학교나 섬마을 분교를
뚫고 싶은 이 학교의 희망 하나
남산코끼리의 꿈 하나.

스크린 높이 걸면 운동장은 극장이 되고
손가락 다친 농부가 뛰어들면 양호실은 병원이 되고
깊은 밤 책읽기 좋아하는 이장님이 선생님을 찾아오면
빈 교실은 마을도서관이 되고
큰 일이 생기면 광장이 되고
큰 손님이 오면 호텔이 되고.....

아, 그 학교가 마을의 학교라면
우리 동국대학교는
세상의 학교라네.

울던 중학생이 만해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고
가는 봄이 아쉬운 여인네가 '명진관' 꽃그늘 아래 와서
시 한편을 쓰고 내려가는
세상의 학교.
머리가 무거운 회사원이 근심 하나를 내려놓고 가고
출근길 국회의원이 밝은 말씀 한 줄 듣고 가고
장충단공원 길을 돌아온 노인이
대금산조 한 가락을 들려주고 가는
세상의 학교.

국립도서관에도 없고
'네이버' 에도 나오지 않는 지혜를 얻은 여학생이
'구글 지도' 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세상의 학교.
꽃이 피거나 달이 뜨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음악이 되는
세상의 학교.

경계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세상의 학교
부산도 멀지 않고 신의주도 멀지 않은 세상의 중심,
꽃 속으로도 길이 보이고
우주로도 길이 통하는
세상의 학교.

오늘이 개교기념일이라네.
세상의 학교,
동국대학교 열린 날.

윤제림 (시인 · 서울예술대학 교수 · 국문 83졸)

5면 강의평가제도 발전방안 6면 동국가족과의 특별한 만남 - 이재창 이사 가족 7면 새 단장한 캠퍼스 모습을 드러내다

본사 수습기자 선발관계로 인해 다음 호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1459호 동대신문은 5월 19 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enlight

새로운 UI 발표, 학교이미지 개선에 주력

오는 7일 개교기념식과 함께 선포식 ... 다양한 이벤트도 열려



올해로 개교 102주년을 맞는 우리대학이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를 공개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UI는 대학을 상징하는 로고나 엠블렘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우리대학의 UI는 기존 로고와 심볼을 현대화하여 단순화 한 권위상징 로고, 커뮤니케이션 로고 등 2가지다. 새 권위상징 로고는 각종 증명서와

교표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커뮤니케이션 로고는 대내외 홍보와 기념품제작 등에 사용된다.

커뮤니케이션 로고의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은 다양한 생각과 비전으로 구성원들이 미래의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될 것을 상징한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또한 여덟 갈래는 불교의 무량광을 상징해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enlight'이라는 슬로건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깨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색상도 그동안 고수

해오던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됐다. 주황색은 따뜻하고 친근감 있는 색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학교 측은 "이미지를 국내에서 세계로, 전통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수적에서 진취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약 1년 간의 작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 UI가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UI개선사업은 지난 해 3월 108프로젝트 17대 과제로 선택돼 10월 UI추진위원회(위원장=한진수·회계학, 경영부총장)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 상임해 제 작됐다고 덧붙였다. 'enlight'이라는 슬로건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깨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색상도 그동안 고수

현재 대학간판과 안내표지판 등은 바뀐 상태이며, 명함·버스 도색 등 점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개교 102주년 기념일인 오는 7일 11시 대학본관 중앙당에서 개교기념식과 함께 UI 선포식을 거행한다. 이날 선포식은 MBC 아나운서 이재용(수교88졸)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며, 재학생 가수 이승기(국제통상4),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 OPUS의 축하공연도 마련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중앙도서관과 동국관 앞에서 UI 홍보용 기념품 배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11시 30분부터 △머그컵 △T-money △USB메모리 △학교 badge △티셔츠 등 경품을 증정하고 'UI와 함께 찍는 폴라로이드 촬영' 행사도 열린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동약에 찾아온 손님... 영국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연구단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체험을 하고자 지난 1일 우리대학을 방문했다. 이들은 영문학사 수업 등을 청강하고, 정각원, 동국미디어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학내 곳곳을 둘러봤다. 이정훈 사진재원기자 dgupress@dongguk.edu

불교계, 로스쿨 대응 '비협조' 일관

종단·재단 대승적 차원 협력 관계 조성 필요

9월에 있을 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우리 대학과 조계종이 함께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이 종단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종립학교에 대한 종단의 무책임한 자세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왔다. 로스쿨대책위원회(위원장=법타 스님, 이하 대책위) 회의에서는 해당 주지 스님들이 불참해 의결권적속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한편, 논의가 아닌 실무 위원회 구성과 책임소재 문제를 시간을 허비하는 등 종단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 문제돼 왔다. 결국 대책위의 제반비용 역시 종단과 학교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학교의 전액 부담이 결정됐고, 백만불자 서명운동에 협조를 부탁하며 각 사찰에 보낸 플랜카드와 포스터들은 대부분 방치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최근 총무원장 스님이 총리, 장관, 정당대표 등 정치계 실세 인사와의 만남에서 단 한마디도 우리대학의 로스쿨 문제에 대해 언급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종단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의 한 스님은 "불교계의 미래와 직결되는 동국대 로스쿨 선정문제에 합심하고 나서야 할 불교계가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며 우리학교 로스쿨 문제에 불교계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적용하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현실에 학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때 조계종과 학교의 대책위 활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뚜렷한 활동이 나타나지 않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우리학교의 로스쿨 탈락은 곧 신 정부의 국정사업(대운하 사업)에 불교계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기각된 증거보전신청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데 이어 2일에는 우리대학이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평등권,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28일에 있을 본안소송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법리적 측면에서는 승소가 가능성이 점차 지고 있으나, 이는 5개월 안에 법 불교계 압박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간 진행된 로스쿨 백만불자 서명운동은 연일 서명자 수가 줄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을 제외한 인터넷 서명 참여율은 3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학장은 이어 "로스쿨은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불교계가 나서지 않는다면 재학생, 동문, 교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나서야 한다"고 동국인의 적

극적인 서명 협조를 요청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1차 사법고시 32명 합격
합격자 수 지난해와 동일

올해 사법고시 1차 합격자중 우리대학 합격자는 모두 3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2008년도 제 50회 사법고시 1차 합격자 2510명 중 우리대학 합격자는 32명으로 최종확인됐다. 이는 작년 제 49회 사법고시 1차 합격자와 같은 수치이다.

이번 시험의 컷라인 총점은 250.02점(평균 72점)이었다. 수험생들의 합격자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 50회 사법고시 2차 시험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되며 3차 시험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치러진다.

포항병원 매각 결정 다음달 30일 폐쇄

경영난 타개 이유 ... 제238회 이사회서 결정

그동안 만장직자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온 포항병원의 매각이 결정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영배스님)는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8회 이사회를 열고 포항병원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 달 15일 열린 이사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포항병원을 폐쇄하기로 하고 포항병원과 흥해 병원부지 매각대금을 경주병원에 투자해 시설확충과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포항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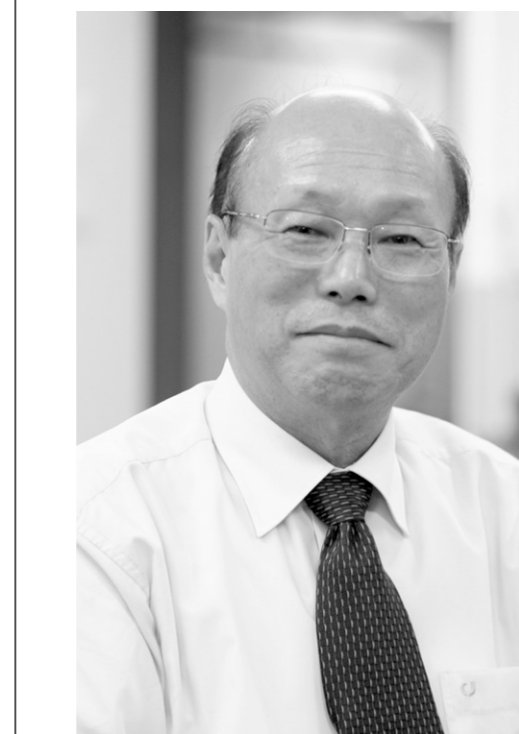
인력은 경주병원과 일산병원 등에 분산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완전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노조와 오는 7일 있을 1차 노·사 간담회를 열고 병원매각에 따른 인력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이사회에서는 △故 유광진 이사에 대한 이사직 해임 건 △교원 8명의 면직 건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승인 △BK21사업 대응자금 5억원 지원 △경주병원 고가장비 시설대여 승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 승인에 대한 건을 의결했다.

화제의 동국인 - 과학기술훈장 수여 이진구(전자공학) 교수

우리나라 밀리미터파 연구 선두

"공학은 실현 가능한 꿈들로 넘쳐나는 분야"



우리나라 전자공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달 18일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은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장 이진구(전자공학)교수를 만나 보았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노력이 더 대단했지."

이진구 센터장은 이번 훈장 수여를 팀원들의 덕으로 돌리는 겸손을 보였다. 과학기술훈장이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1~5등급을 나눠 수여하는 훈장이다.

이번에 받은 훈장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인터뷰 자리를 같이 한 김미라, 채윤식, 김성찬 등 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훈장 수여가 팀원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진구 센터장의 모습에서 팀원들을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밀리미터파는 급속한 정보량 증가에 대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는 1999년 7월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ERC)로 지정된 뒤 9월에 설립

되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많은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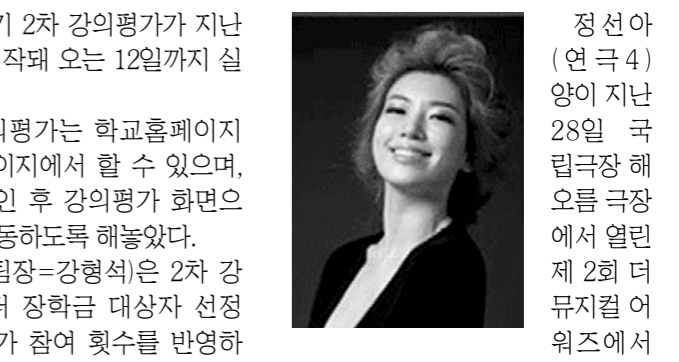
우리나라 밀리미터파 연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정부와 학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확고한 목소리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신감이 보인다.

또한 이진구 센터장은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공학은 미래가 밝고, 실현 가능한 꿈들로 넘쳐나는 분야다. 공학도의 꿈을 가진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며 공학도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 밀리미터파 연구의 선두에 서 있는 이진구 센터장과 팀원들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 더욱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수)
yshero21@dongguk.edu

2차 강의평가 12일까지 장학생 선발시 반영키로



이번 학기 2차 강의평가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실시된다.

2차 강의평가는 학교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또한 로그인 후 강의평가 화면으로 자동 이동하도록 해놓았다.

교무팀(팀장=강형석)은 2차 강의평가부터 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강의평가 참여 횟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강의평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모든 장학금 신청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달 14일 동안 진행했던 1차 강의평가의 학생 참여율이 48.5%로 집계됐다. 학년별로는 △1학년=27.4% △2학년=53.4% △3학년=58.5% △4학년=60.2%로 나타났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 최종 선발

현지상황 중계·응원단 체험 등 활동

동국미디어센터(센터장=윤재웅·국어교육)가 실시한 2008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 공모에서 고유석(사학3)군등 7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엔 선발된 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유석(사학3) △김수영(국문4) △최은빛(중문4) △이승주(화학4) △이정훈(신방2) △장운희(국고4) △김민규(영회영상4)

- 이상 7명

다. ▶관련지면 6면

또 예술대학 초대 학장이었던 전영화 교수 가족은 전용정(식품공학·84졸), 전미정(대학원 조소전공), 전소정(경제3) 모두 4명이 기본재산 매입 승인이다. 이번 동국가족상을 주관한 사업개발본부(본부장=곽노성·국제통상학)는 직계 3대 이상이거나 부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5명 이상의 동문 가족을 기준으로 접수 받았다. 서울 캠퍼스 38가족, 경주 캠퍼스 2가족 모두 40가족이 접수해 그 중 2가족이 선정된 것이다. 시상식은 오는 7일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 가족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입학조정안 발표 ... 평가하위학과 정원감축

교수·학과 반발, "기초학문 위기 초래할 것"

학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학 정원 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지난해 학과별 순위가 발표됐다. 교무팀(팀장=강형석)이 지난 28일 발표한 학과별 평가순위에 따르면 하위 15% 평가를 받은 학과는 독어독문학과 전공, 사회학 전공, 물리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윤리문화학 전공, 수학과, 철학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는 정원 대비 재학율, 취업 및 진학률, 입학성적, 교수 1인당 대학원 학생수 등을 평가해 학과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학교측은 이에 따라 이번 평가를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 통·폐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하위평가를 받은 학과에 대한 정원감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리문화학 전공=2명 △사회학 전공=5명 △물리학

과=5명 △전기공학과=11명 △기계공학과=5명 △윤리문화학 전공=2명 △수학과=4명 △철학전공=2명의 정원이 각각 줄어든다.

이번에 실시된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은 우리대학 53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입학성적(15%) △입학 당시 경쟁률(5%) △편제 정원 대비 재학율(40%) △취업 및 진학률(25%) △교수 1인당 대학원생수(15%)를 평가항목으로 1위에서 53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렇게 매겨진 순위에 따라 하위 1~4위 학과 입학정원이 15% 이하 조정, 하위 5~8위 학과는 10% 이하 조정된다. 또 이렇게 확보된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하위평가를 받은 학과에 대한 정원감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리문화학 전공=2명 △사회학 전공=5명 △물리학

과=5명 △전기공학과=11명 △기계공학과=5명 △윤리문화학 전공=2명 △수학과=4명 △철학전공=2명의 정원이 각각 줄어든다.

이번에 실시된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은 우리대학 53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입학성적(15%) △입학 당시 경쟁률(5%) △편제 정원 대비 재학율(40%) △취업 및 진학률(25%) △교수 1인당 대학원생수(15%)를 평가항목으로 1위에서 53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렇게 매겨진 순위에 따라 하위 1~4위 학과 입학정원이 15% 이하 조정, 하위 5~8위 학과는 10% 이하 조정된다. 또 이렇게 확보된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하위평가를 받은 학과에 대한 정원감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리문화학 전공=2명 △사회학 전공=5명 △물리학

이 같은 학교 측의 발표에 교수회와 정원 감축 대상학과 교수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1일 대자보를 통해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각 학과의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며 "작년 학제개편 당시 정원 감축이 이뤄졌던 학과에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폐교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원 감축이 정해진 학과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수학과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학과에 교수 1인당 대학원생 수를 평가항목으로 넣은 것은 하루아침에 대학원 중심으로 학과를 바꾸란 의미"라며 "대학원 학생 수가 학부 조정의 잣대가



새 길로 다니세요 ... 정각원 입구 언덕길에 보도블럭이 설치됐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길을 학생들이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게 됐다. 이정훈 객원기자 dgupress@dongguk.edu

현전무대

사람없는 출석?

○...중간고사 기간 열람실 불청객 리스트
-친구들 학생증 당당하게 돌려찍는 1인
-도서관 책 대 여섯권 꺼내서 자리에 책만 올려놓고 사라지는 1인
-A4용지 한 묶음 올려놓고 내 자리라고 하는 1인
-열람실이 지하철 유실물 보관센터 인줄 아는 1인
-한번에 3~4자리씩 맡아놓는 1인

당신의 이름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학교 특산물

○...우리학교 명물 중 하나는 로즈버드 커피 컵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에나 버려진 다 마신 커피 컵이 가득. 어디에든 있는 걸 보니 이게 바로 우리학교 마스코트?

어둠 속 장애물

○...오늘도 밤에 강의실로 허겁지겁 달려가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주차금지 팻말에 부딪혔네
아아, 이 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너무나 밤에 안 보이는 죄 재질이 철이라 딱딱한 죄 난 너로 인해 너 죄로 인해 깃스를 하고 있다고.

부스럭 SONG

○...손이 가요 손이가. 굳것질에 손이가요.
모두가 손이가. 음식물반입금지 해도 먹어요. 여기는 중앙도서관.
눈치 안보고도 먹어요. 모두모두 먹어요. 무양심 중도강.

24시간 열람실 부족, 학교만의 문제인가?

관리자 배치결정 ... 학생들 의식전환 함께 이뤄져야

도서관 열람실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도서관을 만들면서 일반 학생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만해관의 법학전문도서관 신축으로 인한 열람실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빈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충문화체육센터 독서실 100석을 임대해 제공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정준(사과대1) 군은 "중간고사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여 시험 준비 하는데 힘들었다"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학교의 재학생 대비 열람실 좌석율은 23.3%이다. 서울시 내 대학의 좌석율은 △중앙대=24.3% △연세대=23.7% △건국대=18.5% △숙명여대=18%로 대우의 대학이 법적 기준인 학생수 대비 열람실 좌석비율 20%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이 제감으로 느끼는 열람실의 부족에 대한 불편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 측은 이같은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기말고사 기간 동안 별관 열람실을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1인이 여러 개의 좌석을 맡아 놓는 경우를 우려해, 별관 열람실 24시간 운영 시에는 배치 좌석 관리를 담당하는 근로학생을 투입해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김병훈 팀장은 "학생들의 장충문화체육센터 독서실 사용률이 50% 정도 밖에 안된다"며 "자료로 대관한 이곳을 활발하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열람실 부족도 문제지만 일부학생들의 열람실 좌석 독점 현상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부족한 열람실 좌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leeshin@dongguk.edu

전국 토목시설모형 경진대회 대상의 주인공을 만나다

1.5m x 1m에 담아낸 건설 엔지니어의 꿈



왼쪽부터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4학년 김호승, 유원우, 이재복, 김인원 군.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실현 가능한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창의력과 추진력, 결단력으로 뚝뚝 뚫은 대한민국 차세대 건설 엔지니어들. 2008년 전국 토목 시설 모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4학년 김호승, 김인원, 유원우, 이재복 군을 만났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경진대회에서 우리학교 학생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네 사람은 'RES PUBLICA'라는 팀명답게 공익성에 초점을 뒀다.

수상작 'PAX Han Fluvius'는 한강 밑에 화강암 지반을 뚫어 교통통제와 홍수 시 방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터널과 수변공간을 적극 이용한 문화 콘텐트 지구를 구상한 것이다. 작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를 위해 전공과목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실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외국 학술잡지들 속에 세 달 동안이나 문혀 살았다고.

설계와 모형제작에 있어 경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조형미와 색채미 '네박자'를 모두 고려해야 했다. 때문에 미리 재단되어 있는 모형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캔, 과자박스 등을 재활용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열심히로 자르는 것보다 직접 칼질하는 게 훨씬 깔끔하다 보니 손도 많이 베였어요. 사포질하면서 손도 같이 갈았죠" 지금은 웃으며 하는 이야기지만, 이 과정에서 수없이 다치고 시간과 노력도 두 배로 들었다. 그러나 덕분에 그들은 제작비와 완성도, 확장시킬 수 없는 추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61점의 작품 중 반 이상이 '다리'를 테마로 하여 비교적 편하게 작품을 준비한 것과는 달리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우리 삶의 문화공간 전체를 조명한 그들. 젊기에 모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그들이 펼칠 멋진 활약이 기다려진다.

(중) jongseo0722@dongguk.edu

동약로에서

이성과 감성사이

이름 : □□□, A대학 #학과, 휴대번호 : 01X-XXX-XXX.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일명 '중국 유학생 살생부'에는 실명을 비롯, 개인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번호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벌어진 중국 유학생들의 도를 넘는 폭력시위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비난하는 한국인들의 위와 같은 대응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 게시판마다 날날이 공개된 중국 유학생들의 신상정보와 그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시위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은 무조건 찾아내 물리적 보복을 함께 하자는 마녀사냥 식 의견부터 일반 중국노동자도 함께 추방시키자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대학 커뮤니티 등도 예외가 아니다. 폭력 시위와는 관계없는 나머지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된 맹목적 비판이 위 게시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시위에 참여했던 우리대학의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일부 유학생의 급진적 행동들

생각하지도 못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장에서 많이 놀랐다"며 "이들 전체 중국 유학생의 모습으로 보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번 사건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보복 폭행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 하세요"라고 말하는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보며, 작년 버지니아총기 사건 당시의 상황과 겹쳐졌다. 한국 사회와 달리 이를 별개로 보면 미국 사회와 대조적이었던 때문이다.

대학생이라면, 지성인이라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조금은 더 냉철하고 분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분명 '비난'과 '비판'의 선을 구분할 줄 아는 지성을 우리 모두는 갖추고 있을터, 폭력 시위자들의 그것과 다르리라 믿고 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Come Together with 108 Project!

세계 명문 동국 이십만 동문과 이천만 불자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하신 발전기금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넓고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며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쓰여집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금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 * 신한은행 : 140-000-649193
- * SC제일은행 : 107-10-119210
- *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 * 국민은행 : 068-01-0373-353
- * 농협 : 360-17-003822

■ 인터넷 약정 :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접속

■ 자종이체(CMS)납부

신청시 필요한 사항: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약정액, 월 납입액

■ 지로 납부(지로번호: 7606368)

사업개발본부에서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용 지로용지를 이용

■ 발전기금 씬어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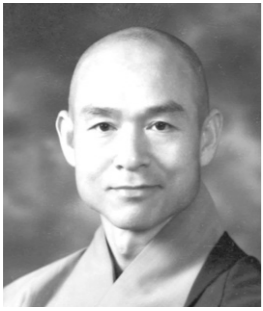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사업개발본부(02-2260-3300, 3794~5)



건학 102주년 기념 축하사

이사장 기념사 총장 기념사

현재의 위기는 변화와 중흥의 발판



신록의 푸른 봄빛으로 가득한 오늘, 우리 동국대학교 개교 10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영광을 함께할 수 있기까지 학교의 건립과 중흥을 이룩하신 불교계 선각자들의 지극한 서원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역대의 모든 동국가족들에게 혁신과 중흥의 새로운 출발을 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동국백년의 역사는 영광과 시련,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영교 신임총장님과 함께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학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내실 있는 민족 대학, 특색 있는 세계 대학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도와 틀이 아무리 획기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지난시기 누적되어 있는 의식과 관행을 벗어나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일구어지지 못하면 질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규제 완화와 자율경쟁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대학들 간의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학교발전의 기회로 삼아 학교 개혁을 통한 변화와 중흥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오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인들은 지난 100년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 역사의 도약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8년 우리는 동국 중흥이라는 기회 앞에 서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수·학생 모두가 묵묵히 정진하는 수행자적 용맹과 더불어 중단·재단·동문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교 이래 내외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교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성적인 성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동국대학교와 그 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 영 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102년의 역사와 새로운 U제정을 축하하며



2008년 5월 8일, 오늘은 우리 학교가 백년 하고도 두 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어느 샌가 한 세기의 큰 봉우리를 넘어 와서 이제 두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걸어온 길은 시간의 아아한 산줄기, 굽이치는 역사의 격랑, 그리고 이 길을 오르고 건너며 20만 동문을 배출해낸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사나운 사자의 이빨과 발톱도 어찌지 못하는 수천수만 코끼리 떼의 행진이 어찌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밝은 눈과 굳센 다리를 가지고 있

었으므로, 씩씩하고 또 씩씩했습니다. 5월 8일, 오늘은 마침 또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가 어버이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는 백 살 하고도 새로 두 살을 더 자신 우리 동국대학교를 생각합니다. 백년의 어버이는 우리에게 용맹정진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씨앗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두 번에 걸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전쟁과 4·19 혁명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 용맹과 정진을 한 시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 백 두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들어 곁허하게 예를 갖추고 다짐하기를, 우리가 어버이 동국대학교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것처럼 부지런히 손을 놀려 백년 뒤의 후배자녀들에게도 백절불굴의 기상을 전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용맹정진과 백절불굴이 동국의 정신이요 자궁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 스스로 무기력하지도

않았으며 꿈을 잃어본 적도 없습니다. 진리와 학문과 정의와 실용이 모두 여기에 서 나왔습니다.

동국 역사의 이런 두터움을 만해 한용운 선사는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라 말씀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알 수 없는 향기'가 21세기의 미래를 향하여 두루 퍼져 나가기를 우리 모두 서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동국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깊숙한 역사의식과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의 기쁨을 자축하기로 합시다. 특히 오늘은 대학의 상징인 U가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세상을 두루 비추는 부처님의 빛을 형상화한 새로운 U는 이제 우리 대학의 새 얼굴이요 새 옷이 될 것입니다. 동국 발전을 위한 그간의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 이제 남산의 밝은 초록빛과 함께 더욱 짙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영 교
동국대학교 총장

총동창회장 축하사

동문화합이 더욱 절실한 102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우리 동국대학교가 창학 102주년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보의 정재로 교육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설립된 우리 동국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중앙학립, 해화전문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침탈의 시기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애국정신을 발현하였고, 6·25, 4·19 등 시대적, 정치적 수난사 속에서도 호국의 수호자로서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쁨을 바로세우기 위한 염원으로 시민항거, 학생운동의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민족의 질곡과 아픔을 같이 하며 건학 정신과 민족정신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국은 이 모든 역경을 이기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한편, 모든 영역에서 우리 20만 동문들이 맹렬히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된 자리의 주인공인 우리 20만 전 동국인들의 감회와 기쁨은 실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 순 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동국인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국의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도 현실적인 발전전략들이 담겨 있는 동국 108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모교의 열정과 노력에 발맞춰 우리 총동창회 20만 동국인들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동국발전을 위한 지혜를 총동원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마음의 안식처인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문 간 서로 정진하며 격려하는 즐거운 분위기의 동문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학교와 동창회가 삼위일체로 동국발전의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한 해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학에 몰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동국학원 이사장 영배스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교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리 동국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회장 축하사

민주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102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학은 손으로 꼽는다. 한동안 이 숫자의 의미, 전통과 권위는 동국대라는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는 존재이유와 전부이기도 했다. 만해 한용운이 상징하는 그 뜻 깊은 민족사학의 이미지, 부처님의 이타사상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식민지라는 가혹한 상황에서도 스님들은 분연히 일어났고 그것이 동국대학이다.

해방이후 4·19 학생시민혁명과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거쳐 동국대는 곳곳히 민족사학의 전통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정부 사건으로 많은 의혹들과 학내구성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제도 개혁, 결정적으로는 로스쿨의 탈락 등으로 동국대의 전통은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구성원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학교당국의 제도개혁이란 것 때문이다. 개혁을 하려면 구성원과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함이 상식이다. 설령 그 개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

된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들 것이며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관료적 개혁이 되고 말뿐이다. 이곳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이지 기업도 공무원 조직도 아니다. 이 점을 망각함으로써 학교는 더 이상 회복할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달려가고 있다. 누가 이 흐름을 멈추게 할 것인가.

개교 102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를 해야 할 마당에 너무 쓸쓸한 기분이 들고 우울해진다. 교수회는 학교당국의 처사를 비판하였다 하여 대학당국으로부터 완전히 절연을 선언당한 셈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학생회 구성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국대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당국은 학생회나 교수회가 학내구성원들의 기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학교당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나 변화들은 암흑시대의 일이라는 것이 후일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개교 102주년에 임하여 지나간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각고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엄숙하게 다짐한다.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불러온다. 민주화여, 동국은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었던가.

정 재 형
동국대학교 교수회장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축하사

목표를 되돌아보는 기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굳은 각오로 모든 동국가족이 기대해 맞이했던 개교 101주년의 해인 지난 2007년 한 해는, 우리 동국 가족에겐 너무나 가혹한 한 해였습니다. 어느 대학보다도 먼저 개혁과 혁신을 위해 구성원들이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형인 신정부 사건, 로스쿨 탈락 등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동국인의 그러한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국인의 자력을 믿고 지속적인 실천의 모습을 다시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너무 빨리 보여주고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100년은 그렇게 지켜 온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멈추지 않음을 기쁘히하며, 온고지신으로 하루하루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에 사로잡혔다고 진정 동국대학교만이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잘못

과 우리를 범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며칠 전 탄신 463주년을 맞이한 충무공이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적을 통쾌하게 쳐부술 수 있었던 저력은 뛰어난 지략과 지도력, 휘하의 장졸들과 조선 백성들의 구국에 대한 공감대로부터 발휘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2주년을 맞이하는 동국의 구성원들은 이제 마음 깊이 공감하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수, 직원, 학생 등 동국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는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 오직 동국대학교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보듬고, 께안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의 동국인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대학의 개교 102주년을 전체 조합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최 기 석
동국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8학년도 후기

www.dongguk.edu

대 학 원	홈 페이지	전 화 번 호	모 집 과 정 / 학 과	접 수 일 자	전 형 일 자
영 상 대 학 원	dic.dongguk.edu	02)2260-37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과정 : 석사, 박사 모집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2008.05.13(화) ~ 2008.05.19(월)	2008.05.30(금) ~ 2008.05.31(토)
불 교 대 학 원 (야 간)	gsbs.dongguk.edu	02)2260-30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불교문화콘텐츠학과(다도·생활예절)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생사의례학과(생사의례학) 	2008.05.19(월) ~ 2008.05.30(금)	2008.06.05(목) 17:00 ~
행 정 대 학 원 (야 간)	gspa.dongguk.edu	02)2260-3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과정 : 석사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지방자치) 안보·북한학과(외국국방, 국방획득, 군사전략, 안보정책) 공인행정학과(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법행정) 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 	2008.05.19(월) ~ 2008.05.29(목)	2008.5.31(토)
교 육 대 학 원 (야 간)	gsedu.dongguk.edu	02)2260-31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학과(교육행정,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과교육학과 	2008.05.19(월) ~ 2008.05.28(수)	2008.06.14(토) 14:00 ~
언 론 정 보 대 학 원 (야 간)	gsci.dongguk.edu	02)2260-37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출판집지전공, 인쇄화상전공) 	2008.05.19(월) ~ 2008.05.29(목)	2008.05.31(토) 10:00 ~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야 간)	gsca.dongguk.edu	02)2260-36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창작학과(시, 소설·드라마) 공연영상예술학과(공연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 	2008.05.13(화) ~ 2008.05.23(금)	2008.05.31(토) 10:00 ~
국 제 정 보 대 학 원 (야 간)	gsiai.dongguk.edu	02)2260-37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2008.05.19(월) ~ 2008.05.29(목)	2008.05.31(토) 14:00 ~

기획연재 - 조벽 석좌교수에게 듣는 '우리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 ① 강의평가제도 발전방안

강의평가 논쟁 핵심은 '시행여부' 아닌 '공개방식'

연구결과 "학생들 평가 신뢰성 이미 입증" ... 공개방식에 대해선 심화된 논의 필요

개교102주년을 맞은 우리학교. 현재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의평가, 재정문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우리학교 조벽 석좌교수의 제언을 들어보고자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글 쓰는 순서

1. 강의평가제도 발전방안
2. 바람직한 재정 확보방안
3. 우수인재 · 우수교수 유치방안

최근에 강의평가에 대해 논의가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야 하듯 필자에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의 글이 요청되었습니다. 아마 필자가 미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고, 또 20년간 미국 대학 교수로 활동했기에 미국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는가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1800개의 4년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되는 강의평가에 대한 내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사례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도 다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평가를 해야 하는가

"아무리 '강의평가제'가 교수들의 교육 철학과 감정에 거부감을 준다 하더라도,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신과 회의에 대한 검토방안의 도구로 교수 평가제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보편화되리라 본다. 대중의 인식을 철학적 논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평가제를 시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수들이 사회의 비판에 이골입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평가제를 대학교육 개선의 방안으로서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인가의 차이로 압축될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만 남는 것이다."

1997년 '공학교육과 기술'에 실린 필자의 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한국에서 강의평가제 도입을 두고 찬반론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필자가 이렇게 확신 찬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시행착오를 몸소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24년도에 이미 강의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찬반론 연구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강의평가제와 이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도 깊습니다. 특히 1970년부터 약 10년 넘게 강의 평가제에 대한 논쟁이 전문가들 사이뿐만 아니라 각 대학 차원에서 활발하게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전후로 종결되었고 이제는 완전 정착되었으며 대학의 당연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강의 평가에 대한 방대한 연구결과가 누적되었기에 개인적 경험과 감정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의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빙성 입증된 강의평가

강의평가의 신빙성을 따지자고 하면 최소한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이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강의평가에 대한 가장 첫 질문은 "과연 학생들의 판단을 신뢰할 만한 것인가?"입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20대 전후의 대학생들이 과연 자신들보다 연장자인 교수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하겠느냐, 감정이나 선입견에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강의

평가의 신뢰성을 따질 때 가장 자주 거론되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강의평가에 대한 연구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신뢰성이 아주 높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 강의평가의 신빙성에 대하여 행해진 1,600 연구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학생들의 강의 평가 점수의 상관도는 0.90에서 0.94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후의 많은 후속 연구에서도 대략 비슷하게 높은 상관도가 나타났습니다. 즉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평가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진실한 교육자보다는 약장사 같이 유창한 말재주로 강의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 교수에게 후한 평가를 준다'는 믿음이 팽배합니다. 또 '실력은 없어도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말 잘하는 것'과 '전문 지식과 실력이 있다'와 구분 명확히 하여 강의 내용의 수준과 질을 평가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직후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보면 학기말에 한 평가와 5년이나 10년 후에 내린 평가는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이 갖든 훌륭한 강의는 지금 당장도 인정받지만 나중에 회고해 보아도 높은 평가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누적된 연구를 통하여 강의평가에 대한 설들이 그릇했다고 밝혀졌지만, 약간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과목은 일반적으로 선택과목보다 평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가 점수와 가장 상관관계 지수가 높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배웠는가'라는 항목입니다.

학생들의 평가가 이토록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강의의 수준과 내용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느 교수를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가까이서 일거일동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인상이나 선입견이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강의평가가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 학생들의 평가는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 타당성도 입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의평가의 목적

미국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수들 스스로가 강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한 발전 지향적 목적(formative evaluation)이고, 둘째는 대학 행정 쪽에서 교수의 능력과 기여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승진이나 보수 책정 같은

학번	이수 구분	학수번호	강의 번호	입력 상태	교과목명	학점	강사명	요일시간	강의실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고
2	전공	BU0251	01	☑	물리학1	3.0	최 2.5-3.5 수 1.0-2.0	B259	165.48	G		
2	전공	BU0252	01	☑	물리학2	3.0	수 5.5-6.5 목 5.5-6.5	B259	168.75	G		
2	전공	BU0253	01	☑	물리학3	3.0	월 2.5-3.5 목 2.5-3.5	B259	172.97	Ex		
2	전공	BU0254	01	☑	물리학4	3.0	화 5.5-6.5 수 8.5-9.5	B259	171.58	G		
2	전공	BU0256	01	☑	물리학5	3.0	월 7.0-8.0 목 8.5-9.5	B259	148.92	Co		
3.4	전공	BU0351	01	☑	물리학6	3.0	수 2.5-3.5 목 1.0-2.0	B259	137.07	Co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의평가 화면

인사 결정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결론 지향적 목적(summative evaluation)입니다.

그러나 첫째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습니다. 교수들 스스로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강의의 질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강의평가를 받을수록 교수는 점점 더 훌륭한 강의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학교 전체의 강의 평가 점수는 매 학기 조금씩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시간공과대학의 경우, 학교 전체의 강의 평가 평균 점수가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교롭게도 강의평가의 둘째 목적인 교수업적평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강의평가가 교수의 업적평가와 승진심사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업적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의평가 점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부분만 따지더라도 강의시수만 채우면 됐지 많은 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강의품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수업적평가 연구와 비교해 미비한 영향을 미치는 강의평가 점수는 오히려 강의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교수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강의 평가가 발전 지향적 도구로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들이 강의 평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써 강의평가 결과의 공개를 고려하게 됩니다.

공개방식에 대한 논란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학본부가 나서서 강의평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흔히 학생회가 강

의평가를 따로 실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회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의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기에 결국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끝없는 말싸움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강의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교수님의 동의를 받습니다. 주로 강의에 자신 있는 교수들이 동참하며, 극소수의 교수는 비록 강의를 잘하더라도 철학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참여를 거부합니다. 물론 강의에 자신이 없는 교수님께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불참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차이를 이기 않습니다. 결국 교수의 불참은 강의가 좋지 않다는 입소문을 입증해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교수에게 최소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강의평가의 공개는 학생회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터넷에 미국의 모든 교수들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 사이트가 여럿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교수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점수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백 만 명이 넘는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와 '열린 세상'의 특징이며 대세이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강의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하였지만 그 당시 더 중요한 이슈는 '강의평가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오늘 날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새로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슈는 '공개할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경력

-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자문위원
한국공학한림원 교육위원장
한국공학교육학회 부회장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

- 역임** 미시간공대 혁신센터 (Innovation Center) 소장
미시간공대 학습센터 (Learning Center) 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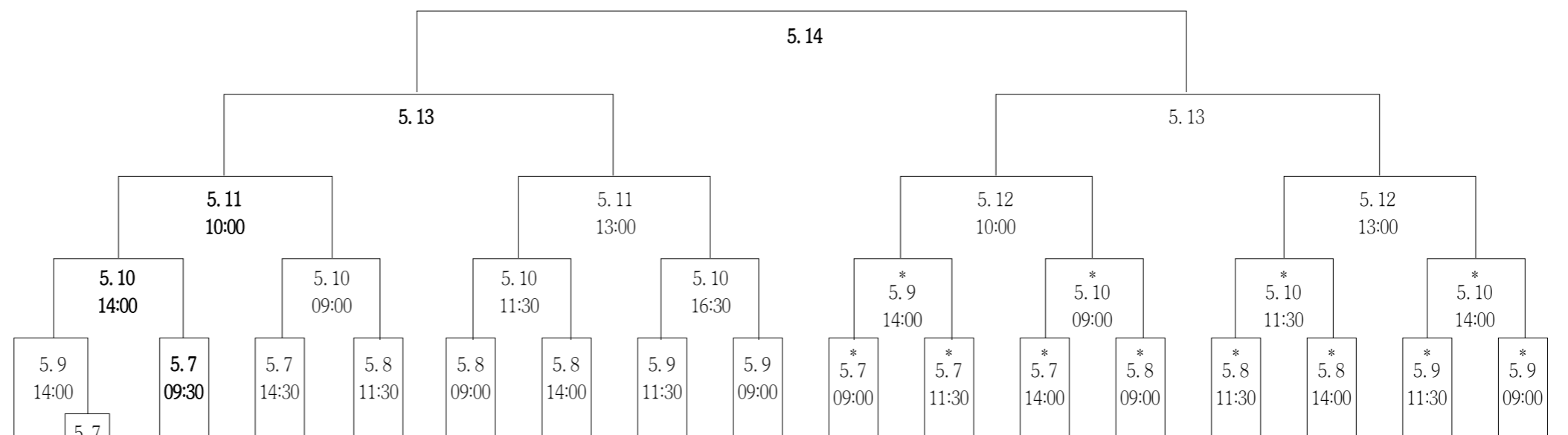
주요 수상경력

- 미시간공대 최우수 교수상(1991, 1993)
미시간 주(州) 최우수 교수상(1992)
미국 공학교육학회 (ASEE) 교육자상(1996)
Parting the Waters 미틴 루터 킹 상, 미시간공대(2003)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2008)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
동악의 함성을 모읍시다!

제63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개최



대회기간 : 2008.5.7~5.14
대회장소 : 남해 스포츠파크
* 대안야구캠프 야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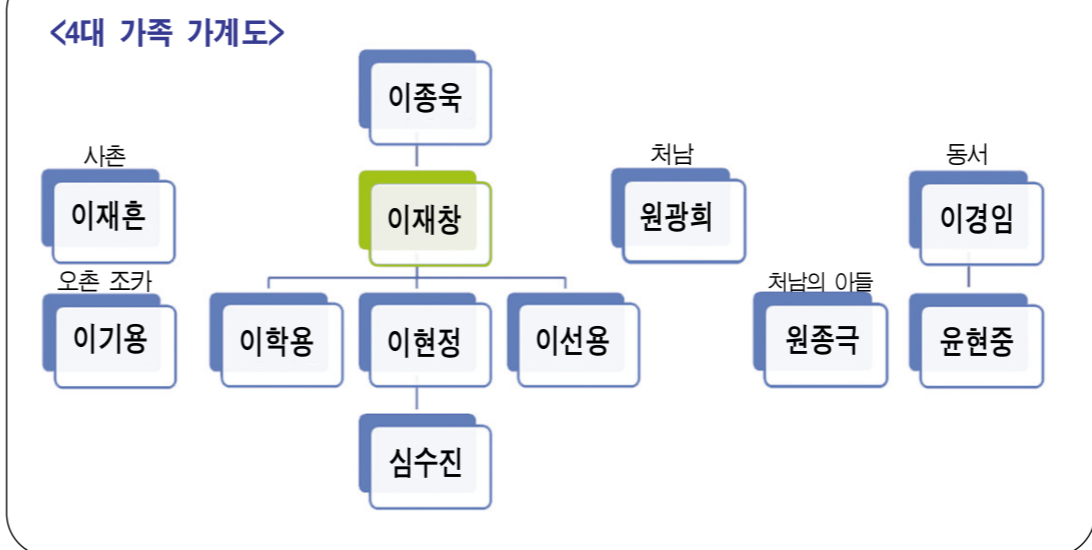
- 계서동, 동의대, 동국대, 경성대, 한양대, 호원대, 성균관대, 고려대, 제주산업대, 한국방송통신대, 동아대, 중앙대, 연세대, 건국대, 단국대, 강릉영동대, 송호대, 충청대, 경희대, 인하대, 영남대, 경남대, 한민대, 동강대, 송원대, 홍익대, 탐라대, 대불대, 원광대, 한일대, 세계대, 한성대, 지디대

동국가족과의 특별한 만남 - 4대째 본교와 인연 맺은 이재창 이사 가족

100년을 이어온 '동국 Never Ending Story'



왼쪽부터 심수진(일문1)양, 이선웅(연영 91졸)동문, 이재창(경제 55졸)법인이사, 이현정(언론정보대학원 05졸)동문



이종욱(명진학교 1908졸), 이재창(경제 55졸), 이학용(전기공 83졸), 이현정(언론정보대학원 05졸), 이선웅(연영 91졸), 심수진(일문 1), 이재훈(불교 50졸), 이기용(불교 63졸), 원광희(경제 61졸), 원종국(전기 80졸), 이경임(경제 56졸), 원현중(전기 81졸)

보다 훨씬 학교 생활이 재밌어요"라고 말한다. 앞으로 그녀가 가족들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동아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어떻게 그려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애정만큼 커진 아쉬움

2년전의 100주년 기념을 맞아 열린 음악회를 보면서 학교의 오랜 전통을 새삼 실감했다는 이현정 동문은 반면에 이전에 명문 사학으로 불리던 학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쉬워했다.

이선웅 동문 또한 신정아 사건이나 로스쿨 문제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녀는 "이번 로스쿨 선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고, 동문, 학생 너나할것 없이 학내 구성원들 모두 정부에 항의해야 할 것 같다"며 분을 토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이선웅 동문에게 학교 소식에 굉장히 밝다고 말하자, '학교 소식에 최고로 근접해 있는 아버지를 둔 덕분 아니겠나'며 웃는다. 인터넷이 발달해 뉴스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얻기도 하지만, 궁금하면 아버지께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학교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어김없이 떨어놓았다. 이현정 동문은 "다른 학교는 날로 발전하는데 우리학교는 이전 모습에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선웅 동문은 학교 기부금 상황이 저조한 것에도 일침을 가했다. "우수한 교수진, 나은 교육환경은 결국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부금 모금을 활발히 해서 학교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성공하면 기부금을 내놓아 학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몇 대를 걸쳐온 이종욱 박사의 가족은 올해 입학한 4대째 심수진 양으로 꽃봉오리를 피워가고 있다. 특히 이종욱 박사 가족은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신심깊은 불자 집안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재기 발랄한 심수진 양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이재창 이사까지 찬찬히 훑어보면 동국의 100여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찬란한 100년의 역사가 있기에 4대를 이은 동국가족은 꽃 피울 수 있었다.

앞으로 또 한 번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이재창 이사 가족이 동국에서 꽃을 활짝 피우길 기대해 본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사진=이정훈 객원기자

다"고 말하며 그 시절을 회상한다. 졸업 후, 동대 불교대학원을 거쳐 우리학교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학교 법인 이사로 학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세 남매의 학창시절

이재창 이사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우리학교를 졸업했다. 이현정(언론정보대학원 05졸) 동문, 이선웅(연극영화 91졸) 동문, 고 이학용(전기공 83졸)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70년대 후반에 입학한 고 이학용(전기공 83졸) 씨를 이어 동생인 이선웅 동문은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연극영화 수석으로 당당히 입학했다.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 "연기자의 꿈을 갖고 연극학과로는 당대 최고의 우리학교로 지원했다"며 "지금은 유명한 한석규, 최민식 선생과 함께 동고동락 했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녀가 연극학과에 입학해 신고식을 치렀을 때 당시 불교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이재창 이사)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한 선배가 어떻게 일았는지, 신고식 도중 "너네 아버지가 불교학과 이재창 교수지, 너 아버지 뺨으로 들어온거 아냐?"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재학시절 이재창 이사가 강의했던 기초교양 '불교문화사' 수업을 필수로 수강을 해야 했다. 그녀 또한 이 수업을 수강했는데, 다른 수업은 몰라도 아버지가 강의하는 수업이라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기간에 아버지 차를 타고 학교에 오면서 '아빠, 시험에 뭐 나와?' 라고 물어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기억이 난다"며 "고지식한 아버지를 뒤흔 시험에 푼 게 없다"며 웃는다.

그들이 대학을 다닌 7,80년대는 학교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터지는 등 학생운동이 절정을 이뤘던 때다. 수업도중 교실 안으로 최루탄 연기가 들어오고 유리창이 깨져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선웅 동문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선배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과 학생들은 예술극장에 꼭 숨어서 공연 준비나,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한

다. 그는 학교 졸업 후 KBS 탤런트 공채14기로 합격해 연기생활과 라디오를 하다가 결혼 후 방송 생활은 접고, 현재는 남편 직장을 따라 중국 상해에서 살고 있다.

이현정 동문은 동양화를 전공한 뒤 국내외에서 작품전을 열었던 촉망받는 화가였다가, 결혼하면서 화가의 꿈을 접고 불교방송 아나운서로 일사했다.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언론공부를 심화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학교 대학원으로 입학했다. 불교 방송에서 같고 뒤는 20여년 동안 아나운서 경력을 통해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5분 스피치에 내 모든 것을 걸어라',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 등 스피치 관련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던 그녀는 현재 스피치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그녀는 "적절한 상황에 알맞은 표현을 하는 '스피치'가 중요하다"며 "이는 불교를 포교 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기독교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확장되어 있는 것도 전도 스피치의 영향이 컸다. "불교계도 스피치 기술을 바탕으로 포교에 힘쓴다면 불교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 심수진 양

마지막 4대의 방점을 찍은 심수진(일문1) 학생은 이현정 동문의 자녀로 올해 학교에 첫발을 댔었다. 이재창 이사는 "가족 중에 우리학교를 특별히 귀한 사람도 없는데, 이 녀석도 피가 당겼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지"라고 말한다. 심 양의 어머니인 이현정 동문은 우스갯소리로 '동국대 동창회 만들 일 있나'며 오히려 말쑥했다.

아직 소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녀는 4대로 이어지는 동국가족이 아직은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 입학 전부터 친지나 부모님을 통해 가족이 이어온 학교와의 인연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 인연에 동참해 신기하기도 해요"라며 씩씩하게 웃는다.

학교를 향한 첫걸음을 막 댔 심수진 양.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만 집안 어른들께 들른 것

동국 100여년의 역사 속에 몇 대에 걸쳐 우리학교를 다닌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계종 탄생의 산파역을 담당했고 초대 조계종 중앙총무원장을 역임한 이종욱(명진학교 1회 졸업) 전 동국대 이사장과 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이재창(경제학과 졸) 법인 이사 가족이다.

두 번에 걸쳐 우리학교 이사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로 시작해 그의 아들 이재창 법인이사, 이재창 이사의 자녀들, 손녀까지 우리학교와 인연을 이어왔다. 끈끈이 이어온 학교와의 인연 덕분에, 올해 우리학교에 입학한 심수진양 까지 4대에 걸친 동국가족에 이르게 되었다.

이종욱 박사의 직계 가족 이외에도 사촌과 외가를 합쳐 방계 가족까지 더하면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이종욱 박사로 시작돼 이재창 이사의 손녀인 심수진 양까지 총 12명이 우리학교를 거친 것이다. 이재창 이사는 "축구경기 할 때 한팀의 인원이 11명이던가? 우리 가족은 축구선수로 뛰고도 남겠다"이라며 운을 뚫었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역사

이 가족이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승려였던 이종욱 박사는 조계종 사찰 몇 곳이 근대 불교 교육의 염원을 안고 만든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이다. 졸업 후, 독립운동의 일선에 뛰어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독립 이후에 학교발전과 조계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이종욱 박사 재임 때인 195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재창 이사는 "아버지가 학교와 불교계 발전에 혼신을 다하셨다. 나 또한 그 영향으로 불교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일선에 뛰어 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한국전쟁의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1955년도에 우리학교에 입학했다. "내가 막 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당시 피난 교사였던 '대각사'에서 수업을 들었지"라며 "황희돈 교수, 서울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신태환 교수 등 쟁쟁한 교수님들 밑에서 학문을 갈고 닦았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법조인 배출!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불자의 힘으로
佛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명운동 참여방법

- 인터넷 동국대 홈페이지 (www.dongguk.edu)
-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 전국 사찰 및 불교계 언론사 등

서명운동본부 연락처
02-2260-49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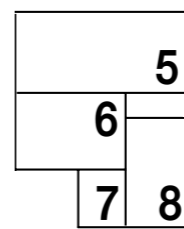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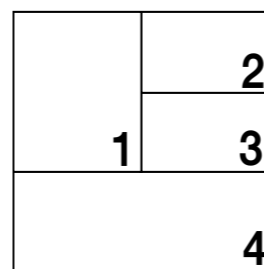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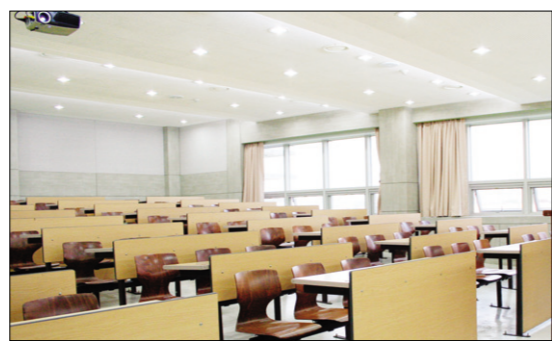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로스쿨 인가를 위한 범불교도 서명운동본부

새 단장한 캠퍼스 모습을 드러내다

밝고 젊고 활기찬



1. 장충단공원에서 올라다 본 동국관 외경
2. 동국관에 부착된 새 UI
3. 명진관 외벽에 걸린 연등과 새 UI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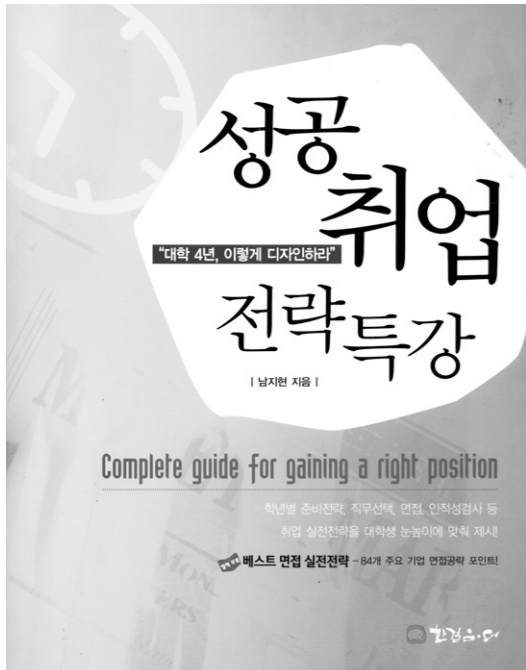


1. 리모델링 된 만해관 외관
2. 학림관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
3. 경영관 401호 강의실 모습
4. 리모델링 된 학림관 외관
5. 6. 문화관과 90주년기념 학술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7. 새롭게 단장한 캠퍼스 안내관
8. 새 니가 그려진 배너



출판사업팀 침체되고 '교양브랜드' 출범시켜

대학출판 위기 극복 프로젝트 '한걸음 더' '성공취업전략 특강' 출간 첫 결실 ... 각계에서 좋은 반응



▲성공취업전략 특강-대학 4년, 이렇게 디자인하라', 도서출판 한걸음·더, 남지현 지음, 323쪽, 1만 5천원.

으며 속명여대 출판부의 경우 폐지되기도 했다. 기존 교재와 학술서적 위주의 제한된 출판형태로는 출판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재정적 문제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출판부'는 작년 9월 '동국미디어센터 출판사업팀(팀장=김윤길)'으로 개편된 이후 출판 사업을 비롯한 지식콘텐츠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종전까지 3명의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었던 출판사업팀의 인력을 보충했다. 특히 편집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경력을 가진 전문 편집자를 스카우트 하는 한편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 영업유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무 능률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출판사업팀의 노력으로 나온 한걸음·더의 '성공취업전략 특강'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기 계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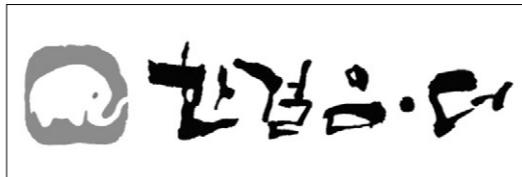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과정과 면접을 실시하면서 깨달은 점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남지현(한솔제지 인사담당자·취업성공전략특강 저자) 씨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취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취업 정보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흐름을 분석해 해마다 개정증보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공취업전략 특강'은 학내·외 기관을 비롯해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는 이 책을 올해의 취업가이드 책자로 선정하고 우리학교 4학년 생들에게 배포했다.

또 출간 일주일 만에 인터파크 취업부문 베스트



▲도서출판 한걸음·더 의 로고

셀러 2위에 랭크되기도 했고 책과 관련된 문의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강원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취업관련부서와는 단체주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밖에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에서도 문의전화와 저자특강 요청을 하고 있다.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대학출판부의 위기에 대해 김윤길 팀장은 "전반적으로 대학출판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대학은 불교콘텐츠를 기반으로 출판계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불교출판의 허브(HUB) 역할을 한다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변화 방향의 하나로 "대학미디어와의 융합을 위해 출판계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과정 개설을 통해 기획, 편집, 제작에서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사업팀은 그동안 학교행정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경영상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독자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약점이 있지만 과감한 경영결정을 위해서는 독립채산제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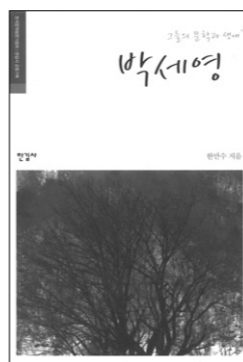
출판사업팀과 한걸음·더가 '전화위탁'이라는 말처럼 출판계의 불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독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기대한다.

학술부

dgupress@dongguk.edu

새 책 소개

카프작가 '박세영' 재조명



▲그들의 문학과 생애 박세영, 한길사, 한만수 지음, 262쪽,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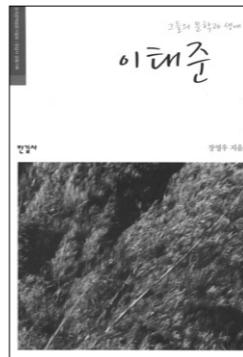
북한의 국가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월북작가 박세영을 재조명하는 책『그들의 문학과 생애 - 박세영』(한길사, 263쪽, 15,000원)이 발간돼 화제다.

저자 한만수(국어국문학) 교수는 월북작가이자 카프(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작가였던 박세영에 대해 이념적이고 딱딱한 시각보다는 그가 남긴 인간적 문학의 모습을 재조명했다.

한 교수는 문학에서의 분단극복의 시도는 낱말복 문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한다면 평화공존의 기반은 취약해진다라는 말이다.

이 책은 박세영이 3.1운동 참여와 이 때문에 당해야 했던 퇴학, 그리고 계급의식의 자각을 통한 사회주의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박세영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통해 식민지 농촌 현실과 계급의식을 형상화해낸 박세영의 시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또 작가의 생애 연보, 작품 목록, 연구서지 등을 충실히 실고 기존의 자료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작가 박세영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평을 받고 있다.

상허의 문학세계로의 여행



▲그들의 문학과 생애 이태준, 한길사, 장영우 지음, 230쪽, 1만 5천원.

'시의 지용, 소설의 상허',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완성자' 등 문학사적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 상허 이태준. 그러나 '월북 작가'라는 편견으로 인해 해금 전까지 이태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미완성의 상태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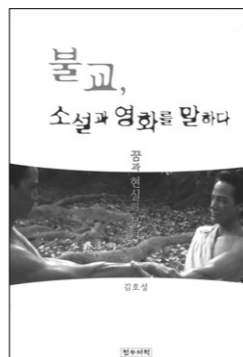
해금 후 약 200편 이상의 이태준 연구 글이 발표되고, 전례 없이 작가의 이름을 딴 '상허 학회'란 학술단체까지 설립되었지만, 아직 이태준에 관한 연구는 각론에 머물고 있다.

월북 후 그의 행적에 대한 신빙성 있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영우(문예창작학)교수는 상허 이태준 연구에 근 20여년을 쏟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이태준의 생애와 작품들을 함께 살피면서 동시에 문학적 성과를 평가한다.

주목할 점은 단편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이태준의 장편소설의 문학적 성과까지도 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순히 학문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이태준의 인간적인 모습도 이야기한다. 1930~40년대 문학가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태준.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태준의 문학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철학, 제3의 눈을 가져라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한다, 정우서적, 김호성 지음, 256쪽, 1만원.

철학, 철저히 재미없는 학문이다. 보통 인간이 보통 생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말 그렇까.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한다(정우서적·254쪽·1만원)'를 집필한 김호성 교수의 책 역시 길로써 보기에 딱딱한 철학에 관한 담론이다. 저자는 "쉽게 잊혀지는 영화나 소설이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하지요"라고 말한다.

김 교수에게 철학이란, 기존의 보편적인 것을 새롭게 보려는 제3의 시각이다.

보르헤스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책, 그것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정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철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곱씹을수록 간단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교에 바탕을 둔 동양적 사고가 소설과 역사 등을 경시해 오진 않았는지, 다수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조언에 용기를 내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불교문헌과 인도철학의 글이 소설과 영화로 매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인간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읽는 이들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저자에게서 묻어가는 따뜻함, 그리고 소설과 영화를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시키는 저자만의 새로운 시각을 쉽게 만끽할 수 있다.

과외 Talk Talk

맨눈 해부학을 알면, 내 몸이 보인다

인체의 생김새를 공부하는 학문이 해부학이다. 해부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공부하는 맨눈해부학,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으로 공부하는 조직학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맨눈해부학은 오래된 학문이고, 그 결과 다 밝혀진 학문이기 때문에 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맨눈해부학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첫째 생각과 달리, 해부학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많기 때문이

다. 둘째 해부학 교과서에 주로 서양 사람의 자료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 사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물 실험과 달리 맨눈해부학은 연구 결과를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맨눈해부학을 알면 우리 몸의 쓰임새를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문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같은 이유로 손바닥에 지문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손바닥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발가락에 있는 것이 발바닥문이고, 발바닥에 있는 것이 발바닥문이다. 손가락 사람의 진화과 연관지으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먼 조상은 기어다녔다. 사람이 일어서 다음에 손가락이 길어졌고 엄지손가락이 90도 꺾여졌다. 손과 발을 견주면 이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참고로 원숭이는 손가락이 길지만 엄지손가락이 90도 꺾여 있지 않다. 사람은 이처럼 자유롭게 움직

이 손가락으로 도구를 쓰게 되었고, 따라서 뇌도 좋아지게 되었다. 글을 쓰려면 무엇을 외우는 것을 보아도, 손가락이 뇌와 관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손바닥의 두꺼운 피부가 잘 접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손금이 생긴 것이다. 즉 손금은 사람의 손가락과 뇌가 진화한 것의 한 자취라고 볼 수 있다.

박진서
의과대 의학과 교수

제8기 에코포럼

한반도 대운하와 생명가치의 재발견

운하문제로 또 다시 한국사회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갈등과 분열이 재현될 조짐이 보입니다. 운하는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인간 사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에코포럼에서는 운하 건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로 종교적 관점에서 운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종교적 담론 형성 가능성에 대해 종교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08년 5월 9일 오후 2시
- 장소: 동국대학교 동국관 M동 3층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
- 주 제: 생명 평화 운동과 운하이야기 - 종교원탁회의의 실현과 생명의 의미 -
- 주 최: 에코포럼
- 주 관: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프로그램

사회자: 김일중 교수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장)

- 14:00 등록
- 14:10 인사말
- 14:20 주제 발표
- 발제자: 김지하 시인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석좌교수)
- 15:00 휴식
- 15:10 토론 (각 20분)
- 토론자: 김경태 교수 (전 한신대학교 총장)
- 김용해 교수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소장)
- 도법스님
-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16:30 종합 토론
- 17:20 폐회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책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 날

'거지성자' 저자 전재성 박사 강연회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 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려고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제9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2008. 5. 13(화) 오후3:00 ~ 5:00
3. 장 소: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거지성자>의 저자 전재성 박사
현 한국배알리성전협회 대표
5. 내 용: 강연 및 사인회
6. 인 원: 80명
7. 참가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중앙도서관, 불교신문
9. 후 원: 도서출판 안그라픽스
10. 기타



* <작자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또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을 나눠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미디어 융합시대의 한국 언론

- 일시: 2008. 5. 20(화) 14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문의: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733-3735)

프로그램

- <개회식> 14:00 ~ 14:20
개회사: 강성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
- <Cession1 미디어융합시대의 New Paradigm의 모색> 14:20 ~ 15:20
사회: 김무곤(동국대 신문방송학과)
발제: 강재원(동국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권상희(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이영음(한국방송대 미디어영상학과)
- <Cession2 미디어 융합과 소유권: 그 쟁점과 대안> 15:30 ~ 16:30
사회: 정대철(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
발제: 정윤식(강원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김택환(중앙일보 편집국 전문기자)
강형철(속명여대 정보방송학과)
- <Cession3 Web2.0시대의 Journalism> 16:40 ~ 17:40
사회: 장하용(동국대 신문방송학과)
발제: 정동우(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토론: 김영욱(연세대 미디어연구팀 수석연구위원)
이호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 <폐회> 17:40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 일시: 2008년 5월 19일(월) 18시 30분
- 장소: 소피텔 엠베스터호텔 2층 그랜드볼룸

미리가 본 전주 국제영화제

농치지 말자! 주옥같은 영화의 집합소 전주국제영화제!



- | | | | |
|---|---|---|---|
| 1 | 2 | 3 | 4 |
|---|---|---|---|
1.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2. 하르트문트 비투스키의 '먼지'
 3.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의 '영원한 젊음'
 4. 가이 매딘의 '나의 위니펙'

의 감독 본인이 직접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롬부스의 여정을 답습하는 과정을 그려낸 이 다큐멘터리는 영화의 내용을 떠나 노감독의 영화에 대한 열정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이다.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 <영원한 젊음>
<대부>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 역시 <레인메이커> 이후 10년만에 신작 <영원한 젊음>을 만들어냈다. "미스터리 안에 숨겨진 러브 스토리다. 시간, 의식, 꿈같은 현실 등 오랫동안 더 잘 이해하고 싶던 중요한 테마들을 갈래갈래로 잘 풀어낸 이야기"라는 코플라 감독의 이야기에서 지난 10년간 그가 영화에 대해 느낀 고민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오고 있다.

조지 로메 감독 <시체들의 일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으로 좀비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조지 로메 감독의 신작이자 시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인 <시체들의 일기>도 놓칠 수 없다. 좀비들의 습격을 받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공격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일념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이야기에서, 좀비영화라는 장르적 특성에 꾸준히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조지 로메 감독의 의지가 느껴진다.

와카마츠 코지 감독 <실록 연합적군>
일본에서 꾸준히 독립영화를 만들어온 와카마츠 코지 감독은 <실록 연합적군>을 통해 1972년의 '아사마 산장사건'을 스크린에 재현한다. 와카마츠 코지는 이 영화를 통해 혁명과 폭력, 진보와 보수, 흥미로운 대립을 190년의 상영시간에 담아낸다. 이외에도 <엑소시스트>를 만들었던 윌리엄 프레드킨 감독의 <버그>, 프랑스 누벨바그의 거장 에릭 로메 감독의 <로맨스> 또한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나의 위니펙>은 세상에 가장 낯선 영화를 만든다는 가이 매딘이 그의 고향이자, 그의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도시인 위니펙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그의 판타지적 감성이 흑백의 화면속에 현란하게 펼쳐진다.

하르트문트 비투스키 감독 <먼지>
하르트문트 비투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먼지>는 정수완 프로그래머의 '강추'작이다. 정말로 재미난 영화를 보고 싶다면 결코 놓치지 말 것을 권한다.
독특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벨라 타르 감독의 회고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4시간 15분의 긴

상영시간을 지닌 <사탄 뎅>은 벨라 타르 미학의 절정을 이루는 작품으로 전주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감히 보기 힘든 영화이다. 빠른 편집으로 구성된 초기작과 느린 롱테이크의 호흡을 지닌 후기작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영화를 마친 후 있을 벨라 타르 감독과의 만남을 보너스.

알베르 라모리스 감독 <빨간풍선>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알베르 라모리스 감독의 <빨간 풍선>은 한 아이와 풍선의 이야기를 그려낸 귀여운 우화이다. 1907년의 과학자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2007년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려낸 <다터 플룻>도 특별하다.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 영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영화는 흑백의 무성영화 속에 배우들의 마음을 넣어서 관객의 배꼽을 잡아 흔들다.

오구리 슌, 유스케 산타마리아와 같은 익숙한 일본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키사카기>는 일본 대중영화의 현재를 보여준다.
소극장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섯 남자의 수다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만 탄탄한 시나리오, 그리고 뛰어난 연출과 편집으로 충분한 극적 재미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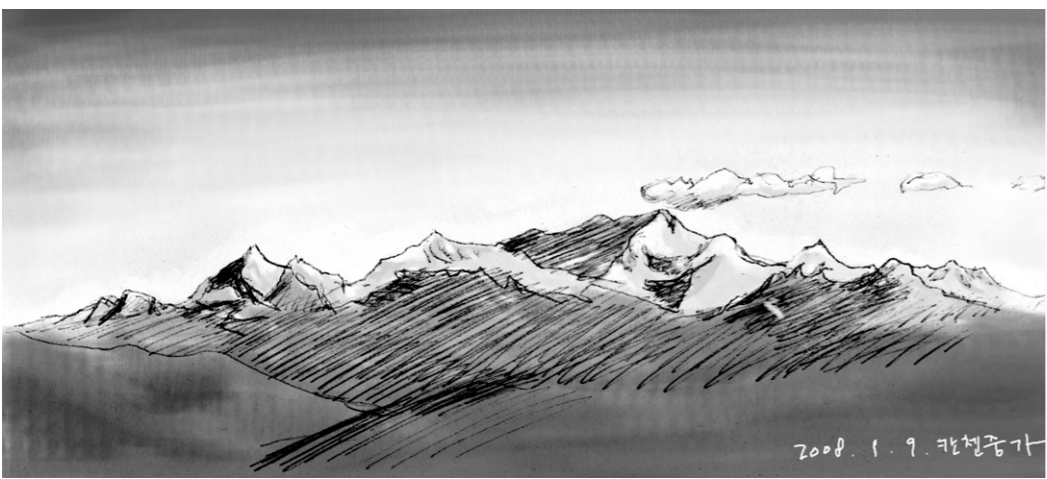
원호성 (영화영상4·필름에 관한 짧은 사랑 편지장)

전주 국제영화제는 우리학교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민병록 교수와 수석 프로그래머인 정수완 교수가 모두 영화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원립 교수는 전주 영화제의 기술감독을 지낸 바 있고, 정재형 교수는 올해 전주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한다. 이처럼 동국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할 수 있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올해로 아홉 번째의 상영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의 관객은 영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올리베이라 감독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영화제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찾아보는 것은 언제나 가슴설레는 일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올해로 100세가 된 포르투갈의 거장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신작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다. 100세

그림으로 본 인도이야기

<4> 태양 빛과 어우러진 칸첸중가에서



해가 떠오르면 이 세상의 한량없는 중생들이 다 이익을 얻는다. 어둠이 사라져 밝아지고, 젖은 것을 마르게 하고, 초목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여물게 하고, 허공을 환하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고, 나다니는 이는 길을 보고, 집에 있는 이는 일을 하게 한다. 해가 한량없는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여래의 광대한 지혜도 이와 같이 한량 없는 광명을 놓아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한다.

-화엄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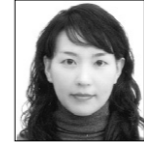
다즐링의 타이거 힐에 오르면 떠오르는 태양 빛을 받아 시시각각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칸첸중가산을 볼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차가운 히말라야의 새벽 한기를 따뜻한 짜이 한잔으로 달래며 일출을 기다렸다. 해가 뜨기 전 여명은 길에서 이미 밝아진 듯 했지만 잠시 후에 그 여명 속에서 해가 뜨기 시작했고 어둠에 가려졌던 칸첸중가의 장엄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한없이 경건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광명 진언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올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 마즈바라 프라 바를타야 흠"
조카와 나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옆

에 자리한 방글라데시 대학생 한명이 두 손을 모으고 따라한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칸첸중가의 모습이 확연해질 때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 드렸다. 나중에 그 대학생은 자신은 무슬림이며 듣기가 좋아서 따라했다고 한다. 아마도 소리에서 어떤 경건한 아름다움을 느꼈으리라 싶다. 대자연의 경이로움은 모든 분별심을 거두고 인간을 한없이 평화롭게 만드나 보다.

밖으로 나와 저 멀리 칸첸중가의 모습을 다시 보니 부처님이 바르게 누워 땅과 하늘을 아우르고 계셨다.

김상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지리교육과 95졸



연등 및 축원문 현상공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많은 동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에 지혜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처님 오신날 기념 공모행사

가. 공모부문: 연등/축원문/기타 작품
나. 공모기간: 2008. 4. 28(월) ~ 5. 16(금)
다. 시상내역: 각 부문 1등 2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
라. 수상자발표: 2008. 5. 21(수)
* 지원자에게 연등기본재료를 배부합니다.

2. 연꽃 비즈공예 강좌

가. 일시: 2008. 5. 7(수) 17:00 ~ 19:00
나. 재료비: 5,000원(선착순 30명)
다. 장소: 계산관 1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문의 및 접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2260-8853-5)

양성평등문화주간 행사 안내

날짜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장소	팔정도	다향관 세미나실	중앙도서관 AV실
시간		오후 5시~ 7시	오전 10시~ 오후 5시
행사내용	호신술 특강 생리주기팔찌 만들기 성역할 고정관념 양케이트	해피타임 알면 알수록 즐거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양성평등영화제 ▷상영영화: 주노, 헤드워, 색스엔더시티 등 ▷타로점 행사: 12시~4시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름 계절학기 안내

여름계절학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업 일정

가. 일반강좌: 2008. 6. 23(월) ~ 2008. 7. 16(수) / 주 4일 수업(월,화,목,금). 15일간

* 종강일: 2008. 7. 16(수)

나. 계절학기강좌

(1) 산사의생활: 2008. 7. 17(목) ~ 19(토) / 2박3일 / 직지사

다. 매주 토·일요일은 수업 없음

2. 일반강좌개설 대상 교과목 및 시간

가. 개설예정 교과목(학교홈페이지 참조)

- 2008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 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실용실습과목은 제외

나. 개설 기준 인원: 강좌별 10명 이상(수강신청 및 등록)

다. 개설 시간

이수구분	오전시간	오후시간
교양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교직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전공	교과교과목	교과교과목

* 개설시간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수업시간

수업시간	오전	오후	야간
1시간수업	09:30-10:20(15-2교시)	16:00-16:50(8-85교시)	18:45-19:30(11-115교시) 18:00-19:30(10-115교시)
2시간수업	10:30-12:20(25-4교시)	14:00-15:50(6-75교시)	18:45-20:30(11-125교시) 19:35-21:15(12-135교시)
3시간수업	09:30-12:20(15-4교시)	13:00-15:00(5-75교시)	18:45-21:15(11-135교시)
4시간수업	09:30-13:20(15-5교시)	13:30-15:30(5-92교시)	
5시간수업	09:30-14:20(15-6교시)	14:30-19:30(65-115교시)	

3. 수강신청방법: 재학생 6학년 이내/휴학생 3학년 이내 신청가능 (타대학 계절학기 교류학생 포함)

4. 수료조사

가. 기간: 2008. 4. 15(화) ~ 17(목)
나. 장소: 교내컴퓨터 실습실(10:00 ~ 21:00), 개인PC(10:00 ~ 24:00)
* 중앙도서관, 민혜관은 일반 컴퓨터실습실 개방시간과 다르므로 착오없이 바랍니다.(10:00 ~ 21:00)
다.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홈페이지/다운로드센터/수강신청 프로그램 다운로드/수강신청 프로그램으로 해당기간 내에 교내 실습실 또는 개인 PC 수강신청

5. 수강신청 방법

가. 기간: 2008. 5. 6(화) ~ 7(수)
나. 장소: 교내컴퓨터 실습실(10:00 ~ 21:00), 개인PC(10:00 ~ 24:00)
* 중앙도서관, 민혜관은 일반 컴퓨터실습실 개방시간과 다르므로 착오없이 바랍니다.(10:00 ~ 21:00)

다.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홈페이지/다운로드센터/수강신청 프로그램 다운로드/수강신청 프로그램으로 해당기간 내에 교내 실습실 또는 개인 PC 수강신청
- 9학기가상 재학생: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서만 수강신청 가능
라. 유의사항: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3학년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유의바랍니다.

6. 수강신청정정(인턴)

가. 정정 기간: 2008. 5. 14(수) ~ 15(목) 2일간
나. 개설 예정 교과목 안내: 2008. 6. 11(수) 예정
다. 유의사항
- 최초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개설예정 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하오니 폐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바람.
라. 수강정정 기간에도 수강신청이 가능함

7. 수강기록취소(인턴)

가. 취소 기간: 2008. 6. 23(월) ~ 6. 24(화) 2일간
나. 취소 방법: 서울캠퍼스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계절학기->수강취소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는: 강좌운영상 강좌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자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취소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증명서류 첨부>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는: 강좌운영상 강좌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자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취소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증명서류 첨부>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는: 강좌운영상 강좌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자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취소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증명서류 첨부>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는: 강좌운영상 강좌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자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취소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증명서류 첨부>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는: 강좌운영상 강좌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자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취소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증명서류 첨부>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는: 강좌운영상 강좌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자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취소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증명서류 첨부>



최민희의
살아숨쉬는영국연수기

④ 영국인들의 유머

체스터 시내의 한 기념품 가게는 영국 문화를 소재로 한 재밌는 엽서들을 판다. 그 엽서는 오기는 관광객들에게 무척 인기가. 나 또한 그 엽서들 앞에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다. 엽서에 담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곧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엽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엽서. 첫 그림은 먹음직스런 소시지와 맥주가 놓인 테이블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독일인들. 그 옆에 예쁘고 달콤해 보이는 디저트를 만족스럽게 음미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있다. 세 번째는 파스타와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림이다. 그리고 마지막. 큰 접시에 올려져 있는 것은 레드 빈(Red bean) 강통과 감자튀김 부스럭거. 그 앞에 냅킨을 두른 채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앉은 영국인인 울상을 짓고 있다.

주변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영국. 그래서인지 우리 호스트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였으며, 저녁에는 항상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태국 등 다른 나라 요리를 많이 해주신다.

두 번째 엽서. 배경은 펍과 클럽이 있는 평범한 영국 도시의 한겨울 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다니는 가운데, 몇몇 젊은 여성들이 한 여름이나 입을 법한 얇은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그림이다.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여하튼 실재로 그 비슷한 모습을 본 내친 무척 재밌는 엽서였다. 2월의 늦겨울 밤,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겨울 코트를 입었음에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때 추위 하면서도 결코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은 영국 젊은 여성들이 주변에 많았다. 이것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국 남성들의 눈에도 꽤 이상했다. 내 친구의 호스트아저씨는 자신의 딸에게 왜 추운데도 웃을 일지 않는지, 아니면 추위를 안타는 것인지 실재로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도 당연히 춥죠. 그런데 클럽에서 외투는 필요 없는데다 갖고 있기 불편해요."

세 번째 엽서. 두 영국인 남성이 펍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1~4파인트(1pint, 568ml)를 마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이후 한 파인트씩 더 마실수록 말이 빨라지고 유창해지며 거의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8파인트의 맥주를 마셔 취할 대로 취한 그들은 결국, "미국식 영어를 시작한다."

영국 어학원은 대부분 'Queen's English'라 불리는 영국식 표준어를 교육한다.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물론, 평범한 영국인들도 영국식 영어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엽서는 이러한 미국식 영어에 대한 영국인들의 시각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최민희(사과대 신봉4)

* 서울캠퍼스 홈페이지 / 학사생활 / 학사센터 /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참조

9. 수강료

가. 이론과목: 1학점당 ₩85,000원
나. 실습실습과목: 1학점당 ₩100,000원
(일반물리학 및 실험1, 2, 일반화학 및 실험1, 2, 일반생물학 및 실험1, 2, 대학생물학 및 실험1, 2, 비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정보통신종합설계1, 2, 자아와명상1, 2, 산사의 생활, EnglishConversation1.2 / EnglishReading1.2, 등)

10. 수강료 납부

가. 기간: 2008. 5. 20(화) ~ 5. 22(목) 09:30 ~ 16:30, 3일간
나. 방법
- 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 my page로그인->계절학기->고지서 출력'에서 선택하여 인쇄
- 납부는행 납부: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전국지점

다.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10명 미만)하면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본부 교무팀(2260-3034)으로 문의 바랍니다

11. 강의평가

가. 기간: 2008. 7. 2(수) ~ 7.22(화)
나. 응답 학생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나, 본인이 수강하는 전 과목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이번 여름계절학기 강의평가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서 해당 학기 수강과목의 성적결과 조회할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적처리

가. 성적조회 및 정정: 2008. 7. 20(월) ~ 7.22(화)
나. 계절학기 취득 성적은 졸업학점만 인정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재수강: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한 학생은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됨. 단, 2008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의 경우 성적처리 미완료로 계절학기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C+이하인 경우만 재수강이 가능함

13. 경주캠퍼스, 교무대학 계절학기(건축대, 경희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학사지원본부

달하나 천강에



박영환
문과대학
중영중문학과 교수

동서양 사이에 숫자에 부여하는 의미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도 드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8, 9를 가장 좋아하지만, 서양에서는 럭키세븐이라며 7을 좋아한다. 8의 중국발음이 '재물을 번다'는 의미인 '發'과 비슷함에 기인한다. 당연히 개업식은 8일, 18일, 28일에 이루어진다. 9를 좋아하는 이유는 9의 발

'153' 과 '888'

음이 '구(久)와 비슷하여 '장수(長壽)'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6일간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7일째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일주일의 단위가 생겨났고, 이에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사실 더 재밌는 것은 '666'의 의미이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악마의 숫자'를 상징하기에 서양에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싫어하는 네티즌들은 부시대통령의 이름이 각각 6글자(George, Walker, Bush Jr.)임을 거명하며 '악마의 화신'이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666'을 굉장히 길한 숫자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6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조롭다'는 의미와 동시에 '재물(俸祿)'의 의미로도 해석한다. 이렇게 길한 숫자가 세 개나 연이 있어으니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결혼식은 주말이 아닌, 6일, 16일, 26일에 거행하길 원한다. 2006년 6월6일, 서양에서는 많은 임신 부들이 아기를 출산하지 않기 위해 난리법석을 떨었고, 반면에 중화권에서는 이날 출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이한 해석은 종교적 신념이나 관습에 근거한 주관적인 의미 부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조차도 굳이 삼삼부위인 2008년 8월 8일, 그것도 8시 8분 8초에 시작하겠다고 한다. 오로지 올림픽에만 올인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의지로 보인다. 인연(因緣)을 중시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저 흥미롭기만 하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총선에서 153석을 얻은 한나라당을 자축하는 청와대 행사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있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153이란 숫자

는 굉장한 길조다. 실로 엄청난 거다'라면서, 그 이유로 성경을 인용해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그물을 멀리 던져 끌어올리자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해석은 분명히 개인적인 자유다. 하지만 청와대 공식행사만큼은 가끔씩 종교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사를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정권'이니 '고·소·영내각'이니 하면서 종교편향성을 우려하는 시점이 아닌가!

사실 숫자의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반대를 싫어하는 독선과 오만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민족주의와 결합될 때,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보다는 획일성, 포용성보다는 배타성에 기울어진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성화방송 도중에 발생한 중국유학생들에 의한 폭력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다.

보리소

섬김의 즐거움

부처님은 자신의 출가를 막무가내로 뜯어말리려는 마부 찬나에게 "인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가는 것이거늘 어찌 반려할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이나"고 힐책하듯이 꾸짖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홀로 태어나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니, 우리에게 실존적 인생은 고독하다. 부처님은 실존적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나는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고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세상에 누구인가 떠받들어 섬길만한 사람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만한 사람도 없어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이라며 다시 절절하게 고독을 토로하기에 이른 다. 고독을 토로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누구인가를 스승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그때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 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다. 그 래서일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도량을 건설하고 최고의 미적 감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게 불상을 조성해 왔다. 답답하고 울적한 사람이나 못 이룬 꿈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 팍 흘려 참배하며 마음을 달래도록 해왔다. 또 불원천리마다 않고 자주 찾아 참배하는 사람일수록 신심이 강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불상 앞에 열심히 참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우러러 받들며 만나고 있는 것일까? 한 스님이 탑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스님은 매일 탑 앞에서 예배를 하시는데, 부처님을 보셨는가요?"라고 물었다. 이 느닷없는 질문은 그 스님은 미처 대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법안종(法眼宗)의 시조 문익(文益)선사가 "그대 말해보라. 예배란 무슨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나 또한 교정을 가로지르다보면 늘 불상 앞을 지나쳐 다니는 젊은 동국인들에게, "지금 그대가 무심하게 보고 지나치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그 분 앞에 고개 숙여 목례라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꼭 한 번 물고 싶다. 성열 강남포교원장

대구의 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 △명박이를 주자.
- △이민가자, 우주로.
- △취사료 고고성
- △물만 먹고 살지요~!
- △생존훈련 고고성 ~
- △미친소 절대 안먹어... ㅠㅠㅠㅠ
- △이명박을 수출한다
- △한 5만원어치 급게 포장해서 청와대로 택배 - ㄱㄱ?
- △뭐 먹고 살라는건지... 단식이다 단식
- △뭐가 됐든 요새세상 먹을만한게 뭐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 △안 먹어
- △20년 뒤에 한국판 '나는 전설이다' 탄생
- △음메~~~~~
- △오오. 기대했네.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당분간 아웃뎀 같듯.
- 거긴 그래도 호주산이잖아 -_-
- △먹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 △보 송송! 개넌 탁



독자 사진첩

정상에서 느끼다

힘겹게 올라간 언덕에서 가쁜 숨을 채 고르지 못한채 눈앞에 펼쳐진 숨 막힐듯한 경관.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장규원(공과대 산업시스템공4)

동약은 시끌벅적

표면적인 열람실 좌석 확보, 원성만 부른다

중간고사 기간, 열악한 열람 환경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했다.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주변 환경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았으니 학생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로스쿨 추진과정에서 만해관 시설의 축소로 좌석 부족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기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학생들 수요에 맞춘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학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학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만해관 책상은 중앙도서관으로 배치, 이용시간 연장, 빈 강의실과 장중체육관 임시 도서관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만해관의 책상을 중도로 옮긴 것은 좌석만을 늘린 것 뿐 공간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되려 공부 여건을 악화시켰다. 이용시간의 연장은

좌석의 증설이 아닌 단지 이용시간 연장일 뿐이고, 빈 강의실 및 장중체육관 시설의 이용은 바쁜 시험기간 학생을 배려했다고 보기 보다는 좌석수를 늘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까운 조치였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좌석 부족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도서관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중도 열의 별관도서관은 추운 겨울에도 모기가 있을 정도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지 오래고 공대도서관의 경우는 책상이 작고 낡았으며 난방기의 소음은 땀 소리에 맞먹을 정도로 시끄럽다. 환기시스템 또한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이다. 특히 만해관의 경우 환기장치와 양쪽 작은 창문이 있지만 밖에서 들어섰을 때의 후덥지근하고 쾌쾌함, 조금 앉아 있으면 멍해지는 것은 200여명 학생이 만들

어 내는 이산화탄소, 스탠드와 사람의 열기, 냄새를 원활히 정화하지 못하고 있을 것을 보여 준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은 실내 공기 정화장치를 찾을 수 없고 창문개수도 적고 크기도 작아서 실내공기 개선은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아등바등 거리며 힘든 중간고사를 잘 견뎌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다. 학교는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학생을 위한 변화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내적인 문제를 외적인 효과로 덮을 수는 없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쾌적한 환경이 최고 값진 것임을 학교는 알아야 할 것이다. 김득수(공과대 사회환경시스템공3)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정확한 보도 위해 세심한 취재 필요

지난 1457호 1면에서는 최근 우리학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중요한 문제인 제 40대 총학생회 선거 무산 소식에 대해 다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거가 무산된 경로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총장실과 학생서비스 팀에게 항의하고 같은 날 총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는 등 학교와 총학생회가 충돌한 기사를 통해 어수선한 우리학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나쁜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로 하여금 학교에 실망을 갖게 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동대신문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와 학생들 중 어느 쪽이 잘못을 했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사들한 대외로 기사는 정말 공감 이 가고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이다. 기사에서는 단과별대로 사들함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는 반면 사들함 대외료를 받는 곳도 있으며 그 사

들함 대외로 또한 각 단과대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대외료부분에서 약간의 오류를 범했다. 신방과의 경우 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재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야 정확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사들한 대외로 부분에서는 학교 측이 각 단과대 학생회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해야 하며, 각 단과대 학생회는 사들한 대외료를 받고 어디에 썼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올해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학교가 교환학생이나 인턴십을 등을 통해 국제 교류가 활기를 띠며 세계의 명문 대학교와 학생들 중 어느 쪽이 잘못을 했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사들한 대외로 기사는 정말 공감이 가고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이다. 기사에서는 단과별대로 사들함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는 반면 사들함 대외료를 받는 곳도 있으며 그 사

(사과대 신방2·매체비평연구회)

동국대학교 학생 모니터링단 모집

CS경영팀에서는 학생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서비스 환경 및 서비스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이는 고객 관점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학교의 고객만족 의지인만큼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 학생 모니터링단 활동
 - 우리 대학 교육·행정·학사운영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후 평가보고서 작성
 - 각종 행사 및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 민원 청취 및 수요 조사
 -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고객의 의견 제시
 - CS개선 토론회, 정기 워크샵 참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지원 자격
 - 우리 학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자
 - (단, 지원자가 많은 경우 성적, 학교생활 등 서류 심사가 사전에 진행될 수 있음)
- 모집 기간: 2008.5.6 ~ 5.20
- 선발 인원: 학부생 00명 (단과대학 및 계열 등을 감안해 인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일정
 - 모니터링단 심사 및 선발: 2008년 5월 28일
 - 오리엔테이션: 2008년 5월 30일
 - 워크샵: 매월 1회
 - 모니터링 활동: 2008년 6월 ~ 12월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동국CS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해당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경영관리실 CS경영팀(본관4층)으로 제출
 - 문의: 경영관리실 CS경영팀 ☎02-2260-8807-8808)작성

경영관리실 CS경영팀

2008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훈련 대상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전역 1~6년차 예비군 (2007년도 ~2002년도 전역자)
 2. 훈련 일정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일 정	5.19(월)	5.20(화)	5.21(수)	5.22(목)	5.23(금)	5.26(월)	5.27(화)

대 상	사과대 불교대	정산대 (전기공학과 제외)	공과대 (전기공학과 제외)	경영대	예술대 사범대 이과대 영산대 야간대	문과대 법과대 생과대	대학원 공대 (전기공학과 제외)
-----	---------	----------------	----------------	-----	---------------------	-------------	-------------------
 3. 훈련 장소 : 56사단 219연대 종로·중구 훈련장
 4.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부,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등 신분 확인용)
 6. 참고 및 유의 사항
 - 가. 교육훈련은 09:00에 시작하여 18:00에 훈련 종료
 - 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버스탑승(버스요금은 학교에서 조치함 :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08시20분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 (지연 도착자 버스지원 불가)
 - 다.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09: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병소 통제)
 - 라. 예비군복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 마.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 바. 개인명단 확인/상세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및 각 대학 학사운영실
-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기금적 자제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개교기념일 특별가격 식사안내

개교 102주년을 지축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가격에 식사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 분	메뉴명	판매가	비고
상록원 학생식당	◎ 새싹참치 (캔) 비빔밥	1,000원	▷기타매장은 정상 운영함
동국관 학생식당	◎ 설렁탕		
아리수 분식당	◎ 새싹참치 (캔) 비빔밥		

* 5월7일(수) 11시 ~ 14시까지만 1,000원 메뉴 제공합니다. * 떡과 음료도 같이 제공합니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 (5/5)	어린이날
화 (5/6)	북어해장국(2000)/제육덮밥(2200) 고구마토스트(3000)
수 (5/7)	설렁탕(1000)/새싹참치비빔밥(1000) 불고기소스부침밥(2000)
목 (5/8)	개교기념일
금 (5/9)	현충이제(2000)/모듬볶음밥(2000) 치킨가스(2500)

상록원	
월 (5/5)	어린이날
화 (5/6)	두부조림(2000)/참치김치덮밥(2200) 낙지술살(2200)
수 (5/7)	돈스군통치기(2000)/설렁탕(1000) 새싹참치비빔밥(1000)
목 (5/8)	개교기념일
금 (5/9)	제육매추리양조림(2000)/닭갈비덮밥(2000) 쇠고기국밥(2500)

아리수	
월 (5/5)	어린이날
화 (5/6)	부대찌개(2000)/월미비빔밥(2000)
수 (5/7)	새싹참치비빔밥(1000)
목 (5/8)	개교기념일
금 (5/9)	참치김치찌개(2000)/제육덮밥(2200)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본질과 대책

헌법정신 부인 ... 정체성 흔들기 강력 대응필요

18대국회의 의석분포를 보면 '뉴라이트'가 퍼낸 '대안교과서'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세력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수구세력의 역사인식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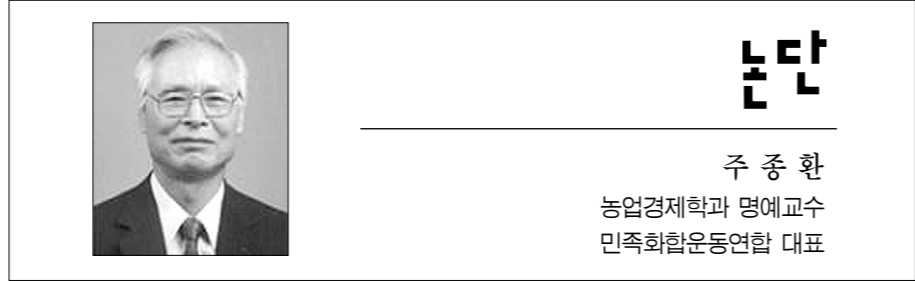
이들에게 공통된 역사인식과 정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강점이 당시의 국제정세 아래서 불가피했다고 보는 '타올사관'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로 이들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협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다.

셋째,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대북 적대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대북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나 사람을 '빨갱이'로 매도한다.

넷째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 하면서 남북간의 민족공조를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외교'를 주장한다.

△설화문학의 대가였던 유몽인의 어우야담(於野談)에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에 유성룡이 군의 총책임 도체찰사라는 관직에 있을 때 하루는 각 고을에 보낼 공문이 있어 역리를 시켜 발송하도록 했다.



논단 주 중 환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대해 관한 일로 시비를 거는 '견달'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 한 예다.

다섯째 친일정신을 방해하고 끝내는 4·19 혁명으로 강제퇴출된 이승만 대통령이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민주주의를 수십 년간 후퇴시킨 박정희 대통령, 12·12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발전의 이바지한 공로자로 인정한다.

헌법에 위배된 역사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서 공통된 특징은 이들의 역사관이 87년 6.10항쟁의 결과물로 1987년에 제정 공포된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에 나와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고덕체는 필자가 삽입)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의 역사가관이 현행헌법 전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점은 일목요연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는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민주개혁, 평화통일이라는 대의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뉴라이트 안보연합 등 주요 보수·우파 단체의 연합단체인 <국가정체성 회복국민회의회-약칭 국정협>이 4월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하게 돌아가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앞 다퉈서 사실을 통해 '광우병이 부풀려 지고 있다. 반미선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싣고 있다.

△2003년과 2001년의 쇠고기 파동 당시 신문들은 사실을 통해 공통적으로 '뒷북치는 광우병 대책', '광우병 파동 통상 마찰 대상 아니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광우병과 흥여, 느슨한 대책' 등과 같은 제목으로 광우병 문제는 통상문제가 아니며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다는데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사관 즉 일제의 수탈을 부정하고, 정진대 문제를 왜곡하며, 자랑스런 민주화 투쟁의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움직임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움직임 변질 우려

뉴라이트-국정협-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의 역사관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좌우 동족간의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들추어내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을 거부하고 현행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규정된 정신을 부정하는 언동을 하면서도 마치 헌법의 수문장과 같이 행세하고 있는 뉴라이트-국정협-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의 행태는 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마치 일본의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 계열의 '후소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의 논쟁과 싸움을 한국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후소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전조작전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역사현행헌법 전문(前文)을 포함한 개헌의 발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불과 몇 년 전에는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국민 건강의 문제라던 신문들이 이제 와서는 '미국쇠고기는 문제가 없는 데 반미선동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되려 혼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을 이제는 동아공사삼일(東亞公事三日), 중앙공사삼일(中央公事三日)로 덧붙여 부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윤재 편집장 yiyoonjae@dongguk.edu

사설

백년 역사를 생각하고 백년 미래를 꿈꾸자

102회째 개교기념일을 맞았다. 기쁘고 자랑스롭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저성장 발전 동력을 한꺼번에 상향조정하느라고 벽치고 힘들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 살길의 간절함을 호소하여 가르칠 것인가. 괴테가 일컬어 신이라 불렀던 그것은 바로 역사이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오늘 아침은 백년 이상을 이어온 동국의 모든 선배들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교기념일을 멋지게 치르자.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만 하지 말고 역사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의식을 마련해보자.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거듭 태어나는, 시간의 새로운 경영자 체계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윤재

상시경력관리시스템 안내

대학생활 동안 일주일마다 한번씩 '나만의 진로·취업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갑니다. 상시경력관리시스템으로 성공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Career Partner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1. 상시경력관리시스템이란? - 진로탐색 -> 진로선택 -> 직업선택 -> 사회진입 준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 모든 과정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학년별, 전공별 진로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 저학년 때부터 진로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으며, - 준비된 사회적, 성공한 직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문의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조은희(02-2260-3054)

법학(공직, 의학전문)적성시험 대비 강좌개설 안내

- 1. 개설강좌(총 4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LEET 등 언어이해영역 나.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Special Lecture for Mathematical & Logical Puzzle) - LEET 등 추리논증영역 다. 비판적 사고 연습(Critical Thinking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라.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문과 대학

- 9. 추진 일정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수강신청(인터넷)	05.06(화)~07(수)		교무팀 협조
수강료 납부	05.20(화)~22(목)	제철학기와 동일	신한, SE제일은행 추가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정정(인터넷)	05.14(수)~15(목)		수강료 5/6 환불
수강과목 취소(인터넷)	06.23(월)~24(화)		담당교수
성적처리	07.20(일)~22(화)		

 - 10. 수강신청 방법 가. 재학생 : 수강신청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후 제철학기 수강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 나. 일반인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02-2260-3756)
 - 11. 기타사항 가. 이수구분 : 전공 또는 자유선택 나.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다. 과목당 30명 이상 수강신청 시 전담조교 배치 라. 경주캠퍼스 및 교류대학(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학생도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담담길 100-2-2260-3756, 이메일 gilhm@dongguk.edu)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의 역사를 찾아서

장충단공원에는 이야기가 살아있다!

1970년 고아로 자란 두 남매의 비극적인 사랑과 이별을 그린 액션멜로물 '안개 낀 장충단공원'이 개봉된다. 이 영화는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지만 처음과 끝에 흘러나온 이 노래, '안개 낀 장충단공원'만은 남겨놓고 갔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목들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 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충단 공원

-배호 '안개 낀 장충단공원'

매해 이맘때쯤에는 장충단공원에서 배호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도 오는 23일 2시 제 12회 배호가요제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노랫가락으로 남아있는 장충단공원, 지금은 우리의 옆에서 조용히 함께하고 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있는 장충단공원이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평탄하지는 않았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에게로 한걸음 다가가 보자.

사실, 장충단공원은 맨 처음부터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었다. 장충단이란 한자로 표기하면 '樊忠壇'이다. 그 뜻대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장려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었던 것이다. 1895년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 당했던 을미사변 당시, 많은 장병들이 일본자객을 물리치다가 죽음을 맞았다. 궁내부 대신 이경직, 시위대장 흥계훈 등 여러 장병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00년 현재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조충단을 만든 것이 바로 장충단이다.

이후 임오군란, 갑신정변 당시에 목숨을 잃은 문신들도 추가되어 장충단에서 제사를 모셨다. 불과 가을 제사를 올렸으며 그 때마다 군악을 연주하고 조충을 쏘았다.

아픈 과거를 달랠던 장충단

'남산 밑에 지은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바친 신령 피시네, 태산같은 의리에 목숨 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한 그분네'
이 '한양가'의 한 구절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그들의 극심한 횡포에 따라 장충단에 대한 경외감도 높아져갔고 그 모습이 노래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을 기리는 장충단 비는 순종이 태자였던 시절 쓴 장충단이라는 세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으며 뒷면의 찬양문은 을사조약에 통분하여 자결한 민영환이 썼다. 선열들을 기리는 장충단은 1908년부터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대일감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일제가 금기 시켰기 때문이었다. 결국 1910년 우리나라가 강제 합병되면서 장충단도 폐쇄됐다. 또한 일제는 1919년 민족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수천그루의 벚꽃을 심고,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박문사'라는 절과 전쟁에서 죽은 일본군 육탄삼용사의 동상을 세워 공원을 조성한다.

광복 후, 박문사의 건물들은 모두 철거 됐지만 우리의 정신이 깃든 장충단은 계속해서 공원으로만 남겨 됐다. 장충단의 건물들은 6.25전쟁으로 모두 소실됐고 장충단비만 남아 1969년 현재 장소로 옮겨오게 된다.

근·현대사의 집결지

이후 조용할 것만 같던 장충단공원에서는 근현대사의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1970년대까지 장충단은 시국강연회의 단골장소였다. 1957년 민주당이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김두한과 이정재의 패싸움이 일어났고, 71년에는 신민당 대선후보였던 김대중이 100만 군중을 이끌고 연설을 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3년 현재는 우리학교 해화관인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건설된 것을 시작으로 국립극장, 신라호텔까지 들어서면서 그 면적이 적지 않게 줄게 된다.

1980년대에는 특히나 장충단공원이 군사독재에 맞선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시위장소가 됐다고 한다. 현재 남산관리사업소 장충분소에 근무하는 박화춘씨는 " 그때는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어 모이기가 좋았지"라며 그 당시를 떠올렸다. 또한 "데모가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공원에 조성하고 나무도 많이 심은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 현재 장충단 공원은 잘 정돈된 도심 속의 쉼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풍파를 거쳤어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 지금의 장충단공원을 둘러보면 한 차례 역사공부가 가능하다. 수표교와 여러 열사들의 동상과 비문이 역사공부를 위한 도우미다.

역사를 되돌아 보는 공간

수표교는 원래 수표동과 관수동 사이의 청계천에 있던 다리다. 세종23년에 장마 때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석을 세운 후부터 수표교라고 불려왔다.



1. 현재 재정비된 공원의 모습. 수표교와 장충단 자리에 들어서는 신라호텔
2. 1919년 조성된 장충단공원과 소실되기 전 제단의 모습
3. 순종의 친필이 새겨진 장충단비
4. 장충단공원 내 이준열사 동상
5. 공원 내 녹음이 우거진 쉼터

이 수표교가 장충단으로 온 이유는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문. 먼저 신영동으로 옮겨갔다가 1965년 지금 이 자리로 정착했다. 수표를 세종대왕기념관에 떼어놓고 온 이 다리는 수표 없는 수표교가 됐다. 하지만 오랜 시간 닳아온 석재의 아름다움이 품위를 잃지 않고 장충단공원의 여유 넘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장충단공원에는 3·1운동 기념비, 한국 유럽 독립운동파리장서비, 이한응 선생비, 유관순, 이준열사 동상 등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약간만 시선을 돌리면 장충단 공원에서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충단공원은 작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그득히 차 있다. 가까이에서 쉽게 이러한 역사의 숨결을 집결해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좋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그것은 아픈 역사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모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수표교와 현대식 건물들에게 잠식당한 공원부지,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많은 선열들의 동상들의 무작위적인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제단도 역할도 잃어버려 이름과 비석만 남은 장충단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은, 우리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내려가 보자. 우리 곁에서 생생히 남아있는 역사의 이야기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라.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사진 = 고우석 객원기자

동국가족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와 효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배려해주신 동국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건강식품인 (동옥고)로 불철 피로하기 쉬운 어린이나 수험생, 노약자의 건강증진과 활력을 높게 하는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1kg/500g/300g 3종류가 있습니다.
동국가족을 위한 특별할인(30~40%)적용.

천연·특수상품의 인삼·복령·천마·치황·꿀로 만든 동옥고

동옥식품 부설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령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홍)
문의 전화: 02)2265-915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옥고"
옛 한의서인 동의보감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천연물 재료를 자주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삼과 복령은 원기를 도와 소화기능을 돕고 폐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정을 생성 유지한다고 하였고, 지황은 혈액생성이 고위집에 따라 열의 발생을 억제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꿀은 풍부한 영양소로 소화기능을 증진시키며 통증을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천연물 재료 중 천마는 뇌질환 계통 특히 두통, 중풍, 경기, 치매 등에 이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현대인에게 많은 두통 및 불면증이나 우울증상에도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옥고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천연물 재료의 최상품만을 엄선하여 제조하였습니다.

섭취량:
섭취횟수는 아침저녁 2회로 나누어 동봉된 스펀으로 1~2스푼(15-30g 정도)을 먹습니다. 1회 섭취량(15~30g)을 계산해보면 꿀이 1g당 3.5kcal 이내이므로 21~42kcal 정도의 열량을 취하게 되므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섭취과정에서 유의 하실 점:
동옥고에는 꿀(1회 분량당 21~42kcal)과 인삼이 들어 있어,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압이 높은 분은 섭취량을 줄여 섭취해야 된다고 하며, 담이나 혈압 조절에 이상 반응을 보이면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정상인들에게는 기재된 섭취방법에 따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 할 때와 같이 동옥고를 섭취 할 때는 담배, 술, 커피를 줄이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장 활동이 부진한 사람은 찬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흡수력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1주일 전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섭취한 후에는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고, 제품에 물기가 침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 하십시오. 제품섭취는 가능한 공복에 하는 것이 좋고, 식전이나 식후에도 좋습니다.

용량	판매정가	할인판매가
1kg	25만원	15만원
500g	15만원	9만원
300g	9만원	6만원

동국가족을 위한 한정특별 할인가

제46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한용운 서경주 신석정 조지훈 이범선 신경민 이영기 홍기삼 황석영 홍신선 조경래 박재현 문정의 정재봉 정찬우 ...

◎ 작품종류
· 시: 시조: 2편 이상
· 소설: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예선
· 작품제출기간: 2008. 4. 21 ~ 5. 14(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7-26번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 응모요령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공식홈페이지(http://munchang.dongguk.edu/)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함께 제출할 것.

◎ 본선
· 일시: 2008년 5월 31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교 중앙당(본관)

◎ 장학금 지급
가.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나.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다.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예창작학과 전화(02-2260-8773, 홈페이지 http://munchang.dongguk.edu/) 또는 각 고등학교 문예반 지도선생님께 문의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DONGGUK UNIVERSITY SINCE 1908
02-2260-8773